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60호
2024년 5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80인데 ... 에베레스트 앞에 선 60년 지기 산 친구들



칼라파타르 정상에 올라 에베레스트를 뒤로 한 채 기념 사진을 찍은 조경석, 노용국, 권봉성, 김남수 동문(왼쪽부터). 왼쪽 네번째는 가이드다.

64동기 권봉성 · 조경석 · 김남수 세 동문, 칼라파타르(5545m) 등반 성공

1964년 문리대에 입학해 산악회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알게 된 60년 지기 권봉성(지질학과) 조경석(식물학과) 김남수(천문기상학과) 세 동문이 지난 4월5일 해발 5545m 에베레스트 칼라파타르 정상에 올랐다. 전문 장비 없이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바로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봉우리 꼭대기에 80노인

세 명이 발을 디딘 것이다. 남가주 권봉성 동문은 “정상까지 채 2마일도 되지 않는 거리인데 숨이 차서 4시간이나 걸려 올라갔다”며 “칼라파타르에서 바라본 에베레스트는 추워서인지 아니면 멋을 부리려 한 것인지 흰구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80 노인이 자주 할 짓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권 동문의 목소리엔 젊

은 사람도 올라가기 힘들어하는 그 곳을 혼자서 아닌 세 친구 모두 등반에 성공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권 동문과 조경석 동문은 남가주에 살면서 거의 매주 함께 산에 다녔고 토론토에 사는 김남수 동문은 매년 만나 등산을 함께 해왔다. 문리대 산악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에베레스트 칼라

파타르 등반에는 한국에서도 네 동문이 참여했으나 고산증으로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노용국(금속학과 76) 동문만 등반에 성공했다. 권 동문은 “60년 쌓인 우정과 추억을 히말라야에서 다시 꽃피울 수 있었던 지난 2주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며 등반을 전후해 많은 성원을 보내준 동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역 동창회 각종 제의, 적극 수용하겠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워싱턴 DC 방문 만찬

이상강(의대 70) 미주동창회장이 지난 4월 6일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정세근 · 공대 82)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임원진을 격려했다. 각 지부 지역 활동을 둘러보며 동문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경숙(생과대 70) 사무총장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D.C.를 찾은 이 회장은 페어팩스에 위치한 바베큐 식당에서 지역 동문 30여 명의 환영 하에 뜻깊은 간담회 겸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2면으로 계속)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지난 4월 6일 워싱턴 DC 동창회를 방문해 지부 동문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알립니다

미주동창회보 5월호부터 변화 있습니다

회보 웹사이트(snuaa.org)로 보기 가능 5월말까지 종이 회보 받지 못하거나 새로 종이 회보 받기 원하면 알려줘야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동창회보 발송과 관련해 5월 부터 몇 가지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17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는 이미 지난 달 부터 공지한 바와 같이 선후배 동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5월 초중순에 수신되는 5월호 발송부터 기존 수신 동문 리스트를 변경하여 보다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동창회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가지 방법으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시대를 맞아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pdf 방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수신이 확인된 동문들에게는 종이로 만든 동창회

보를 이전과 동일하게 매월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을 동창회의 다른 유용한 사업에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대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했던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주위 동문 중 5월 말이 돼도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를 보신다거나 신규로 수신을 원한다면, 각 지부 집행부나 미주 동창회 집행부로 '수신인 등재 확인'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개월간 동창회 집행부는 미 전역 지부들의 동문 정보를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문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동문들의 자산이 됩니다. 17대 집행부 임기 중반을 지나시는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미주동창회가 커뮤니티로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모임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17대 집행부



지난 4월3일 이채진 동문 댁에 모인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숙, 이상강 회장 부부, 이영일 동문 부부, 방석훈 동문 부부, 이채진 동문과 강미자 동문.

모교 홈커밍데이 10월 20일 동문 단체 여행도

모교에서 주최하는 홈커밍데이 올해 일정이 공개됐다.

미주동창회에 따르면, 2024년 홈커밍데이 행사는 10월 20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따라서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주최하는 전야 행사라면 19일에, 후속 행사일 경우는 21일에 열린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미주동창회에서 주관하는 동문 단체 여행은 10월 22일부터 3박 4일이나 4박 5일로 예정돼 있다. 장소와 프로그램은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백옥자 미주동창회 총무국장은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아서 항공편을 예약하려는 동문들의 문의가 쇄도했다”면서 “고국 방문과 더불어 모교의 홈커밍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동문들이 많다. 미주 동문 단체 여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항공편 예약을 여유있게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818)395-1967

이상강 회장, 원로 동문 초청 모임

서울대 미주동창회 17대 회장 이상강(의대 70), 사무총장 김경숙(가정대 70) 부부는 지난 4월3일 남가주 원로 동문인 이영일(문리대 53) 부부, 이채진(문리대 55) 종신이사 부부, 방석훈(농대 56) 상임

이사 부부를 초대해 모임을 가졌다.

이들 부부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이채진, 강미자(음대 62) 부부댁으로 자리를 옮겨 대학시절 함께 했던 여러 추억을 떠올리며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이영일, 이채진, 방석훈 세 동문은 재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친분을 다져왔다고 한다. 앞서 이영일 동문은 미주동창회보 제작에 써달라며 이상강 회장에게 후원금 1만달러를 전달했다.



<1면에서 계속>

참석한 동문들은 진심 어린 환영의 마음을 전하며, 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우애 넘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회장은 “앞으로 미주 동창회는 지역 동창회의 각종 제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장학회 사업도 재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응남(뉴욕·농생대 70) 전 미주동창회장이 이번 모임을 위해 와인을 넉넉하게 보내와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함은선(음대 77)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초대 미주동창회장을 지낸 박윤수(문리대 48) 박사와 이영목(공대 59) 8대 미주동창회장이 보내온 환영사를 박평일(농생대 69) 전 워싱턴 D.C. 회장이 대독했다. 오인환(문리대 63) 12대 미주동창회장도 참석해 이상강 회장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미주 동창회 발족의 역사와 에피소드를 설명하며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오인환 동문에 따르면 워싱턴 D.C.는

미주 동창회 발족의 산실이었다. 박윤수 박사와 문리대 동기인 조완규 당시 서울대 총장이 미주 전체를 아우르는 동창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1992년 미주 동창회를 발족하고, 박윤수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이영목 동문이 8대 회장, 오인환 동문이 12대 회장으로 각각 선출되어 워싱턴 지역에서는 3명의 회장이 나왔다.

미주 동창회의 주력 사업 중 하나는 장학사업이다. 이상강 회장은 미 전국의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인재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1인당 1만 달러의 스칼라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홍택(공대 60) UCLA 석좌교수가 주관하는 ‘SNUAA 스칼라십’은 지난달 미시건의 고광국(공대 54)·고석화(공대 56) 동문 부부가 100만 달러 기부를 약속하여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 회장은 SNUAA 스칼라십과 별도로 각 지부에 장학금 명목으로 매년 2000~25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주 동창회는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관악연대 등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강 회장은 동창회관 마련도 17대 회장단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장소 선정 등 세부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상강 회장의 격려사와 미주 총동창회의 주력 사업 설명과 함께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 모두가 동문회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민홍기(문리대 60), 박평일(농생대 69) 동문 등은 즉석에서 2000달러를 모금하여 이상강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전국 동창회 순방 일정으로 뉴욕과 하트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워싱턴을 방문한 이상강 회장 일행은 올 하반기 텍사스, 뉴잉글랜드, 미시건 지부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상강 회장 일행의 순방행보와 함께 미주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취재=한정희(편집위원·미대 81)

‘서울대 명예 동문’ 양남주 여사 UW 한국학센터에 150만불 기부

미주동창회 다이아몬드 이사 고 고광선 동문 부인



2019년 고광선 동문 생전, 함께 서울대를 방문해 기부자 명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양남주 여사.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유일한 다이아몬드 이사인 고 고광선(공대 57) 동문의 부인 양남주 여사는 서울대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 명예 동문이고 미주동창회의 명예 골드 종신이사다. 고광선 동문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2021년 5월 미주동창회에 10만달러를 기부해 남편인 고 동문을 다이아몬드 이사에 올렸고 본인의 이름으로도 1만달러를 기부했다.

그해 6월 열린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양남주 여사를 명예 종신이사로 예우하기로 결정했다.

양남주 여사는 또 서울대 도서관 최다 기부자다. 별세한 고광선 동문과 따로 또 같이 2013년부터 총 4억2000여 만 원을 기부했다. 서울대 출신인 가족 이름으로도 기부를 했는데 양철주(화학과 59), 양승주(법학과 67), 송은령(의학과 81), 윤종섭(의학과 46), 고광빈(토목공

학과 60), 윤영미(미생물학과 77), 양경수(기계공학과 77), 원호연(공업화학과 74), 강정빈(기계항공공학부 02) 등 모두 9명, 다 모이면 바로 서울대 동창회를 해도 될 만한 ‘서울대인 가족’이다.

양남주 여사가 최근 워싱턴대(UW) 한국학센터(소장 하용출)에 미국내 한국학 연구와 발전의 기둥이 돼달라며 총 150만 달러를 기부해 다시 화제를 모았다. 2020년부터 기부를 해왔는데 지난 4월 또 다시 30만 달러를 더해 총 15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이다.

지난 4월 5일 워싱턴대 앨런도서관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임헌민 워싱턴주 서울대 동창회장장과 김재훈 박사 등 동문들도 참석해 양 여사에게 아낌없는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양 여사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 교환교수들이 오지 못하면서 UW한국학센터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공감해 기부를 시작했다. 양 여사는 이날 행사에서 “많은 재원들이 UW한국학 센터를 통해 발굴돼 한국학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면서 “저뿐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의 성원으로 한국학 펠로우십과 장학금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여고를 졸업한 뒤 1967년 워싱턴주로 이민을 온 양남주 여사는 1972년부터 워싱턴주 정부 산하 기관들에서 일

을 하면서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1979년 에버그린 스테이트 칼리지를 졸업했다. 워싱턴주 주지사 사무실에서 직원관리 및 회계 행정 업무를 했으며 Asian-American Affairs commissioner 로 근무하다 은퇴했다.

고 고광선 동문은 1970부터 5년간 워싱턴주 교통국에서 고속도로 교량 설계 및 공사 감독 책임자로 일했으며 1994년말 성수대교 사고로 한국 교통부의 초청을 받아 1999년까지 안전진단 관련 자문역할을 했다.

“실버 이사는 아내가 준 생일 선물”

뉴욕 김현중 동문(공대 63)

뉴욕에 거주하는 김현중(공대63) 동문이 최근 실버 종신 이사가 됐다.

김 동문이 종신이사가 되는데는 부인 이재숙 여사가 앞장섰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간호사로, 수필가로 활약해온 부인 이재숙씨가 김 동문의 생일

(1943년2월28일)을 맞아 뜻깊은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이뤄진 것이다.

건축학을 전공한 김 동문은 1971년 모교에서 석사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와 컬럼비아에서 1975년 석사를 받은 후 설계사무소에서 일했다. 1995년부터는 뉴욕시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2010년 퇴직하면서 은퇴했다.

김 동문은 뉴욕 지역 공대 동창회를 위

해서도 수 년간 봉사했으며 미주 동창회보는 초창기부터 계속 구독했다.

그는 특히 “미 전역의 여러 동창회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흥미로웠고 각 지역 소식을 알 수 있어서 항상 좋았다”고 밝혔다.

이제 부부가 은퇴 생활에도 제대로 적응이 돼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돕는 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만 81세 생일을 맞아 종신이사 실버가 된 김현중 동문(오른쪽)과 부인 이재숙 여사.

“공대 여학생 13명 집에 모였던 동창회 기억에 남아”

은성숙 동문(공대 56)

LA 행콕파크에 거주하는 이성숙(은성숙, 공대56) 동문이 최근 종신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동창회보 편집팀의 끈질긴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던 이성숙 동문과 극적으로 전화 통화로 성공했다.

지나칠 정도의 겸손 때문에 인터뷰가 쉽지 않았다. 심지어는 자녀가 1남3녀라는 것도 한참 뒤에나 밝혔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산 것밖에 없고 얘기해 줄 게 별로 없다”

는 이 동문을 가까스로 설득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은 끝내 받지 못했다.

부군인 은운석(2012년 타계) 동문은 항공공학과 50학번, 이 동문은 섬유공학과 56학번이다. 50년대에 공대에 여학생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고 10여 명 됐다고 전한다. 부부 모두 70년에 함께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엔지니어로 평생을 살았다.

미국에 오기 전 성신여대에서 섬유공학 교수로 자리까지 잡았던 이 동문은 미국에 와서 2년간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컴퓨터 관련 일을 60세까지 했다.

이 동문은 “당시 컴퓨터를 배우는데 종이카드로 돌아가는 집체만한 기계였다”면서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기계가 어떻게 쓰일 지를 정확히 몰라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부부는 원래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어바인 토박이로 40년을 거주했고 LA에는 부군인 은 동문이 병원 다니기가 용이해서 이주해왔다.

자녀 1남 3녀는 모두 UC버클리와 UCLA출신으로 장성한 것은 물론, 한 자녀는 이미 조기 은퇴해서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고 3자녀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동문들과의 모임인데 칼스배드에 거주할 당시 미국에 있는 공대 출신 여학생 15명 중 13명이 집에 모여 ‘공대 여학생 동창회’를 개최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당시 뉴욕, 보스턴 등 동부에 거주하던 동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모여 ‘힘들었지만 재미 있었던’ 미국 유학, 정착해 가졌던 이민 생활 얘기를 함께 나눴던 것이 동창회와 관련해 가장 인상 깊은 기억이었다고 말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한국 모르던 시절, 한국 문화 영어로 알렸다

미국서 영어-한글 어린이책 첫 출간 이시진 동문

활동, 동문 동정, 새로 이사온 동문 소개 등 동창회 관련 정보를 나누는 채널로 지난 4월호에서는 뉴저지에 있는 케인 대학(Kean University) 도서관에서 전문 사서로 28년을 근무하고 몇 년 전 이 지역으로 이사온 이시진(문리대 독어독문 54) 동문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실었다. 뉴스레터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박기현(외교 08) 동문이 직접 인터뷰를 해 기사를 썼고 미주동창회보에 보내왔다.

이시진 동문은 뉴저지 시절 호림 영문출판사(Hollym International Corp.)를 설립해 미국 최초로 한국 도서를 영어로 출판하는 등 지난 수십 년 간 한국 문화를 미주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파한 기여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진흥공로상을 수상했다. 1970년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거의 잘 모르던 시절, 영한 한영 사전은 물론 한국사, 한국 요리, 한국 동화 등을 소개하는 영문 책을 써 한국 문화 알리기에 앞장 선 이시진 동문을 지난 3월9일 버지니아 센터빌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기현(이하 박): 선배님께서 1930년대 일제 식민기와 50년대 한국 전쟁을 겪으시고, 60년대에는 독일에 건너가 공부하시다 60년대 말부터 미국에 들어와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을 것이라 짐작이 되는데,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시진(이하 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북 평양에서 태어나 국민학교에서 일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일제의 소위 '대동아 전쟁' 말기에는 미국 폭격기(B29)가 평양 지역에 많이 나타나서 평안북도 산골로 피난을 가 있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학교에서 한국말로 교육을 받았는데, 첫 일년은 영어를 가르치더니 이년차부터는 외국어로 러시아어를 가르치더군요.

얼마 안 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져서 다시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그 즈음에 학교에 있던 피아노를 배우려던 참이었는데 전쟁 중 폭격으로 그만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평생 피아노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피아노도 피아노지만 당시에 잦은 폭격으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때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으나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와 그 길로 보따리 하나만 들고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그뻘 한 일주일이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이북 고향에서의 마지막 순간인 셈이었고. 첫째 둘째 형님들하고는 소식이 끊기고 어머니하고 누님, 여동생 이렇게 넷이 정처없이 백리 넘게 남쪽으로 건다가 서울로 가는 기차와 물칸 지붕 위에 타고 서울, 인천을 지나서 미 해군 군함을 타고 부산까지 내려



인터뷰를 위해 지난 3월 버지니아 센터빌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시진 동문.



1977년 펴낸 어린이책 'Soon-Hee in America' 초판본 표지. 미국에서 처음으로 펴낸 영어-한글 책이다.

뉴저지 케인대학 도서관 사서로 28년 근무

“보니까 한국에 관한 어린이책 하나도 없어”

1977년 'Soon-Hee in America' 써서 펴내

한국사, 한국 요리, 동화 등도 영어로 소개

갔어요. 부산에 모인 피란민이 하도 많아 지낼 곳이 없어 미군 음식 상자를 뜯어서 집처럼 지은 '하꼬방'에서 지내면서, 천막으로 친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전쟁이 끝나고는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때 학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학생들 중에는 서울역 앞에서 깡패 노릇하고 거지 노릇하는 사람도 많던 시절에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자유당 시절인데 전쟁 직후라 서울대학 나왔다고 취직이 쉽게 되지도 않았거든요. 다행히 이북에서 피난 올 때 '콘사이스' 영-일 사전을 들고 와서 영어 공부를 계속 했던 터라, 졸업하고 성남고등학교와 중동고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대학에 다시 돌아가 서울대 독문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강사를 하게 됐죠. 그 시절에 고교 독어 검정 교과서를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박: 독일에는 어떻게 가시게 됐습니까?

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한국의 어느 대학이든 외국 유학 경력이 있어야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막상 국내 대학에는 박사 과정이 없었습니다. 마침 독일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서 뮌헨으로 가서 독문학 공부를 했죠. 당시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많이 일하러 갔는데, 광부들은 주로 루르 지방에 많았고, 뮌헨에는 나 같은 한국 학생들이 손 꼽을 정도였어요.

40년 정도 뒤에 아내와 함께 독일에 다시 갔을 때 당시에 살던 기숙사를 보여 주려 했는데 건물 안을 리노베이션 해 버리는 바람에 못 보여줬던 일도 있었어요.

박: 공부를 마칠 즈음에 미국으로 옮기셨다고 하셨지요. 그때가 69년이라고 하셨나요?

이: 맞아요. 미국을 거쳐 귀국하려 했는데 한국에 있던 아내가 한국에 가는 것보다는 미국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미국에 도착해서 이민국에다가 딱

두 줄을 썼어요. “나는 미국을 좋아한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랬는데 허가가 나와서 학생 비자로 바꿨어요.

미국 와서는 고생해가면서 도서관학 석사 학위를 받고, 지도교수가 어느 대학 도서관 관장이었는데 졸업하면서 자기 도서관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경제가 나빠져서 얼마 안 가서 학교가 감원을 하는 거예요. 신입인 내가 감원 대상에 해당돼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됐죠. 그때 광고에 실렸던 뉴저지 케인 대학(Kean University)로 옮기게 됐는데 거기서 28년이나 일하게 됐네요.

대학 도서관에서는 외국어가 많이 필요한데 조금이나마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를 하니까 취직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박: 미국에서 한국에 관한 도서를 영어로 출판하셔서 장관상도 받으셨던데, 그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케인 대학 가서 보니까 한국에 관한 어린이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1974년이었는데, 내가 취미로 사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내 딸내미 사진을 1,000장 정도 찍어서는 지하실에서 디벨롭해서 영어와 한글로 어린이 책을 썼지요. 그런데 초고를 가지고 미국에서 여러 출판사를 알아봤는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삶과 추억

워싱턴DC 방은호 선배님 별세

1947년 서울대 1회 졸업
한국인 첫 NYSE 브로커
클래식 애호가 겸 후원자



방은호 대선배님이 지난 4월14일 새벽 메릴랜드 락빌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100세 생일을 한달 앞둔 날이라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출석했던 락빌에 있는 세계로 장로교회 본당에서 4월 18일 고별 예배가 있었다.

고인은 1924년 5월13일 6.25 때 남북 당한 방훈 목사와 전정혜 사모 사이에서 3남 6녀 중 7번째로 출생했다.

1937년 배재고보에 입학하고 1942년 경성제국대학 약학 전문원에 입학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당시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서 18세는 징병 제1호 대상에 해당됐고 고인은 전쟁에 끌려가 개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온갖 차별과 내지(內地) 일본인들과의 편파적인 경쟁을 뚫고 경성 약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1946년 대한민국에서 세번째로 약제사 면허를 받았다.

그해 10월 서울대학교가 개교하면서 경성제국대학을 흡수하였고, 고인은 이듬 해인 1947년 서울대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다.

아버지 방훈목사가 16대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상동교회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이 한국에 온 의사 스크랜톤 (william B. Scranton)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시작한 교회다. 덕분에 감리교 재단의 아펜젤러 장학생이 되어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었다.

1948년 미 군함을 타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20일 정도 걸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그 후에 기차로 3일 걸려 시카고에 도착하였다. 1948년 9월 시카고 일리노이 공대에 4학년으로 편입하였고 1년 후 졸업했다.

고인은 1967년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Registered Represented Stock Broker가 되었고 Legg Mason & Co. Baltimore 그리고 Bache & Co., Inc. Hong Kong 등에서 근무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생소한 '증권 중개인' 으로, 1969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자문, 1975년 대한 증권 고문, 1980년 이화대학재단, 이수 산업 등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1972년 이대 미대 출신의 김경애 여사와 혼인하였다.

1987년부터 10년간은 본업인 약사로서 메릴랜드 타코마 파크에 있는 제칠안식병원 (Seventh-day Adventist Hospital) 내에서 'Family Pharmacy'를 운영했다.

1979년 워싱턴 지역에서 음악 애호가 단체인 'Korean Concert Society'를 창단해 회장(1980년 ~ 2003년)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재미 한인들의 음악 발전에 기여하였다. 젊고 유능한 음악가를 발굴하여 케네디센터 등에서 데뷔 무대를 열어주며 이들이 세계적인 음악가로 발돋움하게 도와 주었다. 바이올리스트 김지연, 데이빗 김, 김수빈, 첼리스트 패트릭 지, 대니얼 리 등이 그의 후원을 받았다.

88세 즈음 마지막 무대로 아버지 방훈 목사를 기리는 음악회를 기획하고 회장직을 내려 놓았다.

평생을 크고 작은 미술품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꾸준한 컬렉션을 해왔으며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전시회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나이와 상관없이 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삶을 살았다.

2008년에 존스 홉킨스에서 큰 수술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를 50여회 받은 후에 암으로부터 완치되었다. 그러나 치료 후유증으로 삼키는 일과 말하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도 매일 스쿼팅 30회, 팔굽혀펴기 50회를 하고 복용하는 약도 없을 만큼 건강히 지냈다.

2012년 5월 세계로 장로교회에서 명예장로로 임직받고, 소천하기 전까지 교회를 섬겼다.

2023년 가을에 있었던 동문 이사회에 참석해 근간에 레슨 받았던 노래도 선사했다.

긴 연배가 말해주듯, 역사의 증인이었던 방은호 대선배님의 일생 여정은 끝이 났지만 남겨진 발자취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다.

취재=한정희(편집위원 · 미대 81)



이시진 동문은 지난 2013년 10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 한국 출판사를 여러 곳 연락했는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와 혁명과 나'를 영어로 낸 출판사가 하나 있었지요. 거기에 연락해서 내가 쓴 어린이 책을 미국에서 출판하고 싶다고 하니, 그럼 이걸로 미국 시장을 개척해보자, 해서 출판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Soon-Hee in America'라는 책인데, 여기 표지에 쌍안경으로 뉴욕을 바라보는 애가 우리 막내 딸이예요. 이 책이 미국 출판사상 영어-한글 (bilingual)로 된 첫번째 책이 된 겁니다. 그 책을 계기로 한국에 관한 영문 책들을 계속 출판하게 된 거죠.

박: 무려 50년 전부터 미국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신 셈이네요.

이: 글쎄, 당시 미국에서 1,000명 당 한 사람도 우리 출판사 책을 안 샀지만, 미국에서 책을 출판하면 미국 의회 도서관에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s를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걸 등록하면 전세계 모든 도서관에서 검색이 돼요. 그런 면에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재밌어서 나중에는 미국에서 한국말 배우는 책을 냈는데,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강의하는 학교는 좀 있었는데 교과서를 써

야 하나, 사람들이 유일하게 출판했던 우리 교과서를 쓰곤 했죠. 나는 내가 좋아서 한 일이기도 하고, 돈도 별면 좋으니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애국자다 얘기해주면 고맙지요.

실은 그 후에 한국어사, 한국 요리책, 한국 동화 등 한국 문화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출판사가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제 개인의 출판물은 Google Search에서 Gene S. Rhie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박: 오늘 선배님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십년 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 같은 영화 한 편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 생활도 이제 반 세기를 넘게 하신 셈인데, 미국에 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후배 동문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 서울대학 동문 여러분, 이제 한국인의 디아스포라가 시간과 공간을 넓혀 그 후손들이 각자의 지혜와 노력으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성공과 변화를 펴고 있습니다. 기회의 나라 미국에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와 민족을 위해 기여하는 길은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기량을 펼쳐 꿈을 성취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3년 10월 열린 워싱턴DC 지부 이사회에 참석했을 당시 방은호 선배.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7대 이상강 회장과 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LA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김종섭 총동창회장, 서울대 이사 선임

총동창회장의 이사회 참여는 이번이 처음
모교 의사 결정에 동문 사회 뜻 전달 기대

1년에 절반 가까이 남가주에 머물며 남가주 동창회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김종섭(사회사업학과 66) 모교 총동창회장이 서울대 이사회(이사장 권오현)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김 총동창회장은 향후 2년간 이사회에 참석해 모교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진 이사로 활동한다.

모교 이사회는 학내 인사 7명과 외부 인사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모교 총장과 부총장 중 총장이 지명한 2명,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1명씩 지정한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는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따라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는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이사회에 총동창회장이 이사로 참여해 왔다. 총동창회장의 이사회 참여는 모교와 동창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모교 의사 결정에 동문 사회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변화다.

유홍림 총장은 지난 1월 열린 본회 신년인사회에서 “서울대 이사회에 김종섭 총동창회장님을 이사로 모셨다”고 알리며 “이사회에 동창회장이 같이 함으로써 서울대와 동창회가 실질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열린 남가주 문리대 신년 모임에 참석한 김종섭 총동창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유홍림 모교 총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문리대 역대 회장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내가 번 돈 사회와 나눠 쓰겠다는 마음이 부자되는 지름길”

김종섭 회장, 재학생과 토크콘서트

크게 기부하기 때문에 큰돈 버는 것
서울대 나와서 생계 걱정하면 바보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요?”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지난 3월6일 관악캠퍼스 관정도서관 양두석홀에서 열린 ‘총동창회장과 재학생의 토크콘서트’에서 후배들에게 물었다. 국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의 오너이자 수시로 거액을 기부하는 자산가인 김 회장의 물음엔 이미, 많이 번 사람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또는 써야 하는지, 그 답을 내포하고 있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해도 그중에 적당량만 내가 갖고 그 이상은 사회와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이자 현 메타의 회장인 마크 저커버그는 스물 몇 살 때 이미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만 노력했겠습니까? 노력은 다른 사람도 많이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그런 큰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큰돈을 벌지 못했을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2015년 12월 딸의 출생 직후 페이스북 지분 99%를 사회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페이스북에 편지 형식으로 발표된 그의 기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부액은 당시 시가로 450억 달러에 달했다.

김 회장은 이어 “빌 게이츠도 거액을 벌고 대부분 기부했다. 그런 분들이 부자 될 자질이 있는 분들이며, 나눌 줄 아는 사람들에게 부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천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굴러들어올 것”이라고.

김 회장은 첫 기부의 계기를 떠올리기도 했다. “제가 선일곱 살에 아들이 결혼했는데, 하객들이 찾아와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축하받을 일을 했나? 자문해봤습니다. 아들에게도 물었고요. 축하받을 일 한 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자 해서 이바지 음식 대신 돈을 받아 고아원에 기부했고, 저는 총동창회에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 억원을 기부했습니다. 당시 70이 넘는 동창회장님이 찾아오셔서 ‘수차례 전화하고 사정해야 기부하는 게 보통인데, 어떤 젊은 동문이 제 발로 찾아와 10억을 기부했느냐’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실적 압박받는 거래처 은행에 예금 많이 넣어주는 등 주위 사람들을 기회 닿는 대로 많이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난처한 일 있을



때 서로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사업도 더 잘 풀렸어요.”

김 회장은 또 졸업하고 54년이 흘렀지만 지나온 인생 중 가장 생각나는 때가 대학 4 년이라며 “학창시절 많은 추억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1학년 땀 땀땀에 관심이 생겨 잠깐 역도부에 들어가 역기도 들어봤다고. 베푸는 사람이 잘 산다는 김 회장의 가르침은 학창시절 추억에도 어김이 없었다.

“사회사업학과다 보니 대학적십자의

창립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거기가 뭔지도 몰랐죠. 저희 학번 땀 땀 땀대에 여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영문과, 불문과 외엔 거의 없었죠. 그 드문 여학생들이 대학적십자에 많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남녀비율이 비슷해졌습니다. 연건캠퍼스의 간호학과 학생도 많이 왔어요. 워크숍 때나 농촌 봉사활동 때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다섯 커플이 탄생했고, 일부는 결혼에 성공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잘 살아요. 봉사하는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이란 게 영향이 없지 않을 겁니다.”

김 회장은 학과 실습 때 고아원, 정신병원, 홀트아동복지회 등지를 매주 다녀오면서 “대한민국에 못 사는 사람 없이 봤다”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 돈을 많이 벌어서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세계적인 리더가 되려면 세계를, 특히 가난한 나라를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것은 물론 국위를 선양해 대한민국 발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김 회장 취임 후 본회와의 협력 사업도 전 개해, 작년엔 라오스에서 열흘간, 올 초엔 군산에서 3박 4일간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들어와서 먹고사는 것 걱정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여러분은 좋은 길에 들어섰다, 출발이 괜찮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없다”고 격려했다.

“제 노래로 위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 LA동부 지역에서 개업 중인 전문의 백시환(의대 93) 동문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살려 음반을 2번이나 내는 등 인기 가수 뺨치는 실력으로 화제다. 최근에는 3번째 앨범을 구상 중이다. 또한 백 동문은 서울대 의대 패밀리라는 것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동문들이 출간하는 경우는 많지만 음반을 내놓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백시환(William Sewan Baek MD) 동문은 이미 자리잡은 신경내과 전문의가 됐지만 어린 시절엔 고민이 많았다. 공부도 충분히 잘했음에도 주체할 수 없는 끼가 넘쳤기 때문이다. 지금도 의사보다는 대중 가수가 더 어울리는 외모를 갖고 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의사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가수나 선택의 기로에 고민을 많이 했지요.”

백 동문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수(?)를 따랐다. 아버지, 삼촌, 사촌 동생까지 모두 의사인 집안에서 가수의 길은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레지던트를 하면서 반항을 한번 했다. 대부분 가족들이 성형외과 전문의인데 백 동문만은 신경 내과를 선택한 것. 그리고 의료인으로 10년 정도 지나서 드디어 이루지 못한 가수의 꿈을 실현했다.

의사로서 돈이 남아돌아서 음악을 재개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음반 홍보와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서 후원자를 찾고 있는 것도 다른 가수들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늦게 시작한 음악인의 길을 풀타임으로 하지는 못하고 음반은 자신의 직업인 신경 내과와 관련있는 노래를 모았다. 아무래도 매일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이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루게릭병 환자인 탓에 그들의 마음을 노래에 비춰보게 됐다.

“언젠가 나를 버릴거야
언젠가 나를 잊을거야
기억은 흐려지고 매일 똑같지만 한데
지새우는 밤길에도 갈곳없는 이곳에
거울속에 누군가가 날 바라만 보네
난 있다고 생각지마 이미 맘은 떠났네”

마치 사랑에 애타는 남녀가 주고받는 가사 같은데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내과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소재로 노래를 작사작곡노래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다가도 진지하게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찍을지 고민하는 것을 보면 그의 열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마저 들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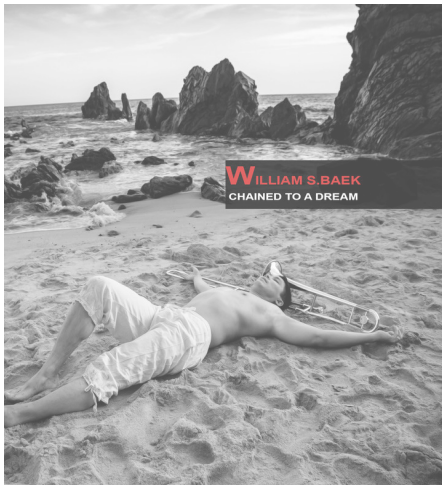
앨범에 수록된 곡은 장르도 한가지가 아니었다. 중풍환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슬픈 발라드인데 비해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노래는 테크노 댄스곡이라는 것. 알려진 바로는 신경내과 의사 출신이 이런 시도는 백 동문이 처음이다.

그는 “제 꿈의 실현을 시작했다”며 “제 나쁨으로 제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노래를 가만히 듣다 보면 환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대중들에게 환자들, 특히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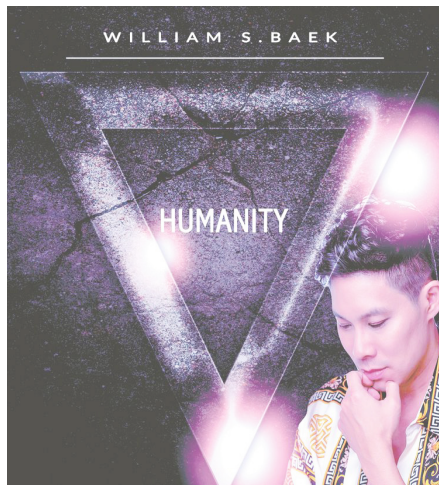
“중풍엔 발라드, 알츠하이머엔 댄스곡” 환자들의 마음 담은 노래 작사 작곡 가수 뺨치는 실력으로 음반 2장 발매



백 동문의 가족사진이다. 가운데가 아들 승재군, 부인 백선희씨.



2017년에 발매한 1집 앨범 ‘워크어게인’의 표지.



2020년에 발매한 2집 앨범 ‘휴머니티’의 표지.

족이 환자인 경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앨범 ‘워크어게인(walk again)’은 2017년에 발표했는데 수록곡은 다음과 같다. Someone else(알츠하이머병), Chained to a dream(중풍), Love again(루게릭병), I really need you now(학대 피해), In my tears(자식없는 부모), La pelicula blanca(하얀 영화, 장애아를 돌보는 어머니), Inside these walls(고아원에서 자란 어린이의 꿈), Jumpstart(중증근무력증), Set your body free(파킨슨병), Walk again(척수손상, 다발성경화증)

2020년 겨울 팬데믹으로 2집 앨범이 늦어졌다. 하지만 시대와 맞는 노래가 나왔다. ‘당신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언뜻 실연 당한 연인의 가슴을 찢어지게 할 만한 노래 같은데 실재는 아니다. 2집 앨범 휴머니티(HUMANITY)에 수록된 곡이다. 그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의에 빠진 누군가에게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싶은 메시지가 남았고 노래도 더 잘해야겠다는 욕구가 있었다”고 2집을 내댄 배경을 설명했다.

2집에 수록된 노래 리스트다.
1. Kenotic (테크노): 케노시스(kenosis) 2. Freewheeling (펑크록): ADHD 3. Your Void(발라드): Death of your loved one 4. La Luz(라틴레게): 삶의 지혜 5. If You Leave Me(발라드): 이혼, 별거 6. Lost and Found(발라드): 자아 정체성 7. Days to Remember(R&B): palliative care, hospice 8. Can We Say We're Trying(록): 책임감, 끈기, 인내심 9. It's just not enough(발라드) 10. Heartache(상처): 아랍어/영어 11. 1-2-3(재즈): 근면 12. Courage(록): 한국어/일본어- 사회적 억압과 부패에 맞설 용기 13. His Blood(기독교) 14. Christmas without you 15. Why is it can you not change? (팝): 결혼 문제

백 동문은 음악 이외에도 언어적으로도 탁월한 재능을 갖춰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가 유창하고 한영의료통역 자격증을 갖고 있다. 또한 독일어와 일본어는 통역 수준,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는 일상 의사소통이 된다. 모교 의대를 1999년에 졸업했고 시카고 의대병원 성신신경과, UCSD의대 신경과를 거쳐 신경내과 등 3개 보드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백 동문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 의대 패밀리다. 지난해 타계한 백세민 박사는 모교 의대를 67년에 졸업했고 역시 지난해 분당병원에서 은퇴한 성형외과 전문의인 작은 아버지 백룡민 교수는 15년 선배다. 또한 동문이며 1965년 생인 박홍석 삼성병원 중재적 방사선과 전문의는 자형(누나 남편)이다.

인랜드한인교회에 성가대 활동도 열심인 백 동문은 아내 백선희씨와의 사이에서 외아들 승재군을 두고 있다. 시카고대에 재학 중인 승재군은 아버지와 달리 성형외과 전문의로 방향을 잡았다. 아무래도 1996년 할아버지 백세민 박사가 세우고 작은 할아버지 백룡민 교수가 운영했던 베트남 구개열(언청이) 어린이를 돕는 ‘스마일포츨드런’(Smile for children)에서 지난해 백 동문과 봉사했던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전한다.

백 동문은 아직 구체적인 후속 앨범 출간 계획은 없지만 시간 나는 대로 편두통에 관한 노래 등 몇 곡을 지어놓은 상태이고 십 수년째 성악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아 곧 3집 앨범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 동문의 노래는 유튜브와 애플뮤직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유튜브: www.youtube.com/playlist?list=OLAK5uy_ntsPF11xMkt0g-4CLqtXoobR77Ta_EZZYo

▶애플뮤직: music.apple.com/us/album/humanity/1501559329

장병희 편집위원

총 15곡으로 구성된 2집 앨범에는 장르도 테크노, 팝, 록, 발라드, 중동-미국 퓨전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영어, 스페니시, 프랑스어, 한국어/일본어, 아랍어 등 노랫말 언어도 다양하다.

1집 보다 더 깊어졌다. 신경내과 환자들을 위한 노래로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루게릭병 환자들의 마음을 노래에 비춰보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앨범의 경우, 대부분 환자와의 얘기를 모티브로 삼은 곡들로 ADHD(주의력 결핍장애), 죽음, 이혼, 결혼문제, 말기 고통완화치료(palliative care)/호스피스 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메시지가 명확하다. 곡 중 한국어/일본어곡 Courage(용기)는 특별히 질병을 떠올리며 쓴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부조리와 억압에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설득이 담겨있다.

백 동문은 한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집을 세상에 내놓고 나니까 후련하고 성취감을 얻었다”며 “하지만 가슴속 한편에서는 아직도 노래로 알리고

“단체 활동 이탈했다고 회초리 든 정소용 담임 교수 믿어준 김옥길 총장 만난 건 인생의 행운”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

우규환 (사범대 60)

내 나이 80 중반을 넘어서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진다. 자기의 부모·형제와 친한 친구를 제외하고, 과연 평생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났을까 헤아려보니 그리 많지 않다. 많지 않음은 귀한 것이다. 5월 스승의 달을 맞아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존경하는 두 분 스승님을 가만히 떠올려본다.

1946년 봄, 나는 만 6세로 풍기 초등학교 2학년에 입학하였다. 학교생활이 겨우 익숙해질 무렵 한번은 야외 관찰학습이 있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금계동 초입에 있던 옛날 정자가 있는 야산으로 올라갔다. 당시 어떤 자연 관찰을 했는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난다.

다만 돌아오는 길에 친구 2~3명과 야합하여 학교 교실까지 누가 빨리 뛰어가는지 시합했던 기억은 생생하다.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서 교실에 도착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가 먼저 왔나 살펴보는 것도 잠시, 전체 학생들이 다 돌아오자 우리는 교단 앞으로 불려 나가야 했다.

야외 수업을 나간 급우들과 같이 교실로 돌아와야 하는데 달리기를 하여 먼저 교실로 돌아온 우리는 졸지에 단체 행동에서 이탈한 문제가 된 것이다. 달리기에 참여한 친구들이 선생님께 차례차례 회초리를 맞았다. 나는 얼마나 아픈지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울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나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회초리를 드셨던 담임 선생님은 나의 서울 형님 우필환의 친구였다. 정소용 선생님은 산법동에 살았는데 필환 형님과 같이 금계동 우리집에서 자고 간 적도 있다. 나는 친구의 어린 동생이라고 봐주지 않고 공평하게 체벌을 하신 정소용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 아픈 회초리를 통해서 단체 질서를 무너뜨린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한번은 수업 시간에 ‘베니스의 상인’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고전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수전로 사일록의 음해를 “살 한 근을 떼어내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는 명판결로 마무리하는 판사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와 다름이 없었다. 나의 형님 우필환은 24세 청운의 꿈이 피기도 전에 625 전쟁 때 납치되어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필환 형님과 나의 첫 번째 담임선생 정소용 선생님을 생각하면, 78년 전의 생생한 기억이 마치 어제오늘의 일인 듯 되살아나 나의 가슴을 울린다.

또 한 분의 존경하는 스승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옥길 총장이다. 1976년 가을 나는 이화여대 문리대 화학과에 신입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캐나다에서 포닥을 끝내고 소위 금의 환향을 한 첫 부임지에 도착하니 교무처장이 나를

데리고 총장실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김 총장님은 첫 만남에서 “우 박사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 같아.

얼마나 이화대에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잘 해주시오”라는 다정한 말씀을 주셨다.

그때 상황을 부연해 설명하면 C신임 교수는 이화

여대에서 1년을 지내고 고려대로 옮겨갔고, 후임 J교수는 1년 후에 서울대로 가버려 서강대의 S교수가 임시로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대강을 하던 형편이었다. 실험실과 연구실은 비커와 플라스크, 알코올버너만 있을 뿐 연구용 기자재가 거의 전무했으며 겨울철에는 동파를 방지하려고 아예 수도관을 잠가버려 지금과는 격세지감이 있었다.

그 당시에 대학 입학은 국가 고사와 대학 본고사가 병행하던 시절이라 한번은 본고사 출제 교수가 20여 명이 총장 공관에 모였다. 대학입시 출제는 confidential(1급 비밀)이라 출제자가 모여 비밀 장소(보통 특급호텔)에서 출제하고 입시가 끝나야 해방되던 관습이 있었다.

김옥길 총장은 출제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출제를 총장 공관에서 하든지, 호텔에서 하든지 혹은 집에서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총장이 교수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총장이 교수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소?” 짤막하지만 힘이 있는 부탁이었다. 우리는 집에서 정상 출퇴근을 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입시를 치르게 되었다.

매년 한 번씩 후문 근처에 있는 총장 사택에 전체 교수를 불러서 평양냉면을 손수 대접하기도 하셨다. 그는 3번 총장 임기를 끝내고 문경수양관으로 은퇴하셨는데 10.26 사태 후 전두환 정부에서 문교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교복 자율화’를 시행한 주역이었다. 서슬이 시퍼렇던 군사정부에서 군민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줄 알고 있다.

나는 5년 후에 서울대로 자리를 옮겨갔지만,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김옥길 총장의 훈시가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다. 나의 팔십 평생에 존경할 만한 두 분 정소용 담임선생님과 김옥길 총장을 만난 것은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김옥길 전 이화여대 총장.



동문시

한국남 (공대 57)

Helen, My Love

God has sent
The kindest and most caring
Person on Earth
My beloved Lady in life
Helen, My Love

Inside and outside
Full of grace and beauty
Overwhelmingly overflows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me and others

Her children chanted
The most trustworthy
Her amazing memory
Combined with unique creativity
The pride of the family

Her literary talent
Extraordinary knowledge
Making all of us
Enviably and admirably
Beyond imagination

Outstanding cooking talent
Making everyone around her
Enjoying the best meal
Lucky enough to be
Her guest in time

Her loyalty and devotion
Hallmark to be enchanted
Allowing all of us
Our daily life being
Happier, cozier, cheerier

Delightful and charming
The smile on her face
Helping us move forward
Wishing her a birthday 83
The very best, forever

As a high school boy, I was an emotional individual interested in nature, world events, and literature. Despite initially considering a literary path, I ultimately chose engineering in the middle of my senior year and have never regretted it. Throughout my engineering career and retirement, I maintained my lifelong passion for writing but didn't have time to pursue anything significant. However, when I retired with the encouragement of one of my dear friends, I started exploring my thoughts and aspirations through poetry. I have marveled at poetry's concise yet potent expression, allowing me to convey fleeting emotions and reflections. In addition, translating my English verses into Korean, or vice versa has also been an enriching experience.

“그들의 참상 알고 돕지 않을 수 없어요”

뉴욕 서병선 동문, 탈북난민음악회 주최



뉴욕 거주 서병선(음대65) 동문이 오는 5월19일 오후 6시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제 42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를 주최한다. 1986년 예술가곡연구회를 창립하고 음악 활동을 해온 서 동문은 2000년대 초반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알게 되면서 지난 20여년간 북한 탈북민을 돕는 음악회를 봄 가을로 1년에 2번씩 가져왔다.

음악회는 구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도 하지만 탈북자들의 어려움과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알리는데도 목적이 있다.

순수 음악, 클래식 음악을 공연하는 단체를 만든 서 동문이 구출 자금을 돕는 음악회를 하게 된 계기는 한 주부의 열성적인 설득에서 시작됐다. 평범한 뉴욕 가정주부인 윤성신씨가 탈북자들의 처참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비디오 상영회를 개최했는데 그곳에 있었던 서 동문이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음악회의 개최 결심으로 이어졌다. 이후 20여년간 기금 모금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항상 성공적으로 열렸고 모인 기금은 탈북자들을 돕는 데 사용됐다. 한번에 모으는 기금은 대략 15000~16000달러가 된다. 최근까지 두리하나라는 단체에 전달했다. 올해부터는 갈렙선교회에 기탁하게 된다. 두 단체 모두 탈북자들의 생환을 위해서 활

동하는 곳이다. 구출된 탈북 난민은 대략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활동 성격상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는다)

“북한에 넘어갈 수는 없어도 두만강을 넘어 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두만강을 넘기까지가 벌써 절반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넘어와서 또 한 번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구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건강에 허락하는 한, 탈북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생명을 구하는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

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탈북 난민을 돕게 된 것은 아무래도 서 동문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다.

서 동문은 경기도 벽촌 농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지금이야 경기도 광주군은 수도권으로 변화한 곳이지만 서 동문이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너덧마지기의 논과 손바닥만한 텃밭을 일궈서 6식구가 먹고 살았다. 4 남매가 배가 고파 엉엉 울면 어머니는 밥 달라고 우는 자식들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가난의 슬픔과 고난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곤 하셨다. 어려운 시절 어떤 친척이 보리 한 말을 갖다 주었는데 얼마나 고마웠던지 서병선 어린이는 그를 천사로 생각했다.

서 동문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남의 집 논밭에서 닦치는 대로 일해 얻은 품삯 덕분이다. 서 동문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며 고교(경신고) 졸업 후 고향으로 내려가 야학을 시작한다. 가난하여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불쌍한 후배들을 모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을 가르쳤다.

나이가 들어 군에서 제대를 하고 음악 공부를 결심했다. 그런데 음대를 진학

하려면 레슨도 받아야 하고, 기본 실력을 닦아야 되는데 가난한 가정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솟아날 구멍이 있었다. 형이 전차 운전사로 받은 6천원 중 레슨비로 3천원을 4개월 지원해 준 덕분에 서울대 이모 교수를 찾아가서 “제가 성악을 하고 싶는데 돈이 없으니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제자가 됐다. 덕분에 모교 음대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악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서 동문이 성악의 정수를 알게 된 것은 줄리아드에서 공부할 때라고 전한다. 그때부터 가곡 전도사로 나서게 됐다. 줄리아드 진학도 극적이다. 음대 3년을 마칠 무렵에 후배 방옥경이 뉴욕으로 음악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만나 몇 가지 얘기를 들었다. 그때 유학 분야에 밝은 사람을 소개 받았는데 그가 서 동문의 테이프(TAPE)를 시카고 아메리칸 컨서버터리(AMERICAN CONSERVERTORY)로 보내 입학 허가를 받았었다. 1969년 1월 추운 어느 겨울날 미국에 왔고 이듬해에 줄리아드에서 오디션을 거쳐서 입학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줄리아드 역사상 최고 고령자 신입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0년 32세에 입학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돈도 없어서 식당에서 웨이터를 해 가면서 어렵사리 열심히 음악공부를 했다.

가곡에 미쳤던 것은 이유가 있다. 그가 서울대에 어렵게 입학해 보니 모두 오페라에 흠뻑 빠져 있었다. 당시 성악에 대해 깊이 아는 것도 없지만 대개 이태리의 가곡, 칸초네를 즐겨 부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악의 깊이가 없었다. 듣기는 즐겁지만 심금을 울리는 노래는 아니었다. 1970년 뉴욕 줄리아드에 입학하여 절반 장학금을 받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든 성악의 정수는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선율이 조

화를 이루는 슈베르트나 브람스 같은 가곡이다. 오페라에 모든 열광을 퍼붓는 한국 음악계가 크게 잘못됐다는 깨달았다.

요즘 뉴욕예술가곡연구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고난에 처한 탈북자를 돕는 일이다. 뉴욕 한인들에게는 가곡을 들려주고 탈북민들에게는 동포사랑의 참 뜻을 전하고 있다.

2000년 3월 25일 제1회 음악회 성금에서 모은 8500달러를 갖고 탈북 현장인 중국점경지역인 도문, 훈춘, 길림, 흑룡강성 등을 방문했다. 시골 골짜기마다 우리 혈육인 탈북여성들이 성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상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2000년부터 연 2회 탈북자돕기음악회를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2일 제21회 음악회에서는 1만2000달러를 모아 천기원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두리 하나 USA에 전했다.

북한에도 가본 적이 있다. 1992년 범민족 통일음악회라고 해서 뉴욕 대표로 갔었다. 가보니 북한에선 가곡이 거의 연주가 없었다. 뉴욕팀이 연주했던 곳은 귀빈만 모시는 만수대 극장이었다.

북한에서는 어디를 가나 연주를 마이크를 대고 한다. 통일을 돕겠다는 의지로 북한을 갔지만 클래식 음악이 걸모습으로 외부 선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로는 거의 연주가 안 되고 있었다.

오는 5월 19일 열리는 음악회에는 그래서 오페라 아리아는 없고 가곡 위주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김지유, 권현이, 이슬, 전예원씨와 바리톤 강동훈, 테너 박승현, 서 동문이 무대에 선다. 피아노는 콕예인씨다. 티켓은 뉴욕 반디서점(718-353-4411), 하나뮤직(201-943-7782)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크네시아 교회(HaKnesiah Presbyterian Church) 주소는 58-06 Springfield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제40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 모습. 왼쪽서 6번째 서병선 회장.



제 42회 탈북난민구출 음악회 출연자들.

예술이 된 글씨... 선과 정신이 만났다



서예에 관한 소고(小考)

이유성 (사대 57 · 서예가 · 생물학자)

우리가 붓글씨로 알고 있는 서예(書藝)는 동아시아 문화발전의 중요한 예술적 경험이며, 오늘날 유네스코(UNESCO)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무형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예는 본질적으로 글씨 쓰기 뿐 만이 아니라,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예술적 표현과 정신적인 에너지가 결합된 행위 예술에 이른다. 그리하여 서예는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사고를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동양서예와 서양서예

서예는 전 세계적으로 문자를 이용하여 나타나는 선(line)의 예술이다. 단단한 금속 펜을 사용하는 서양서예(Western Calligraphy)와는 달리 동양서예(Eastern Calligraphy)는 부드러운 붓 펜을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아시아인들은 글을 읽고 쓰는 역사를 통틀어 말보다 글(또는 글씨)에 더 관심을 가져왔다. 글쓰기를 통해 지식이나 지혜를 추구하고 전파했으며 자신을 계발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하여 서예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예술형식이 되었다. 동양서예는 중국에서 시작하여 성숙했으며, 후기 역사적 단계에서는 자연적인 인간 이주를 통해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주변 국가로 확산되었다고 본다.

이들 모든 나라의 서예는 중국어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문화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한국과 일본의 서예 형태는 한문에서 파생되어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했다. 훨씬 후에 일본어 문자(히라가나/가타가나)는 한자에서 유래했으며 한국어의 음절블록(즉, 한글)은 고유한 서예와 서체에 따라 발전했다.

서양문화에서 ‘캘리그래피’는 말 그대로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만든 손글씨를 의미한다. 하지만 동양서예는 서양서예와 매우 다르다. 동양적인 의미의 서예는 아름다운 손글씨와는 공통점이 없다. 동양서예는 일반 손글씨와는 그 우수성을 달리하며, 품질과 미학, 가독성, 크기, 형태, 붓 획, 비율, 리듬, 간격, 문자, 균일성 등을 높이 강조하고 평가한다.

동양서예는 오직 선에서만 가능한 조합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의 솜씨와 상상력의 결합이다. 그들은 삶과 영성, 예술을 모두 통합하는 철학 전체가 삶의 방식이 된다고 믿는다. 동양서예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서예의 기술적 기량과 철학, 역사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웃 나라마다 역사, 제도, 관습이 다르므로 서예의 정신도 조금씩 다르다. 해당 국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법/서도/서예

(1) 서법(書法, Shufa): 중국에서 사용. ‘법(法)’이라는 글자는 ‘길’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예는 자연에서 유래하므로 ‘글씨쓰기의 법칙’은 사실상 ‘글씨쓰기를 낳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한다. 실천해야 할 확립된 문체(또는 서체)가 많고, 각 문체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원칙/규칙이 아주 많다. 역사상 많은 유명한 대가들의 서예 작품이 지금도 교과서 또는 모범으로 사용된다.

(2) 서도(書道, Shodo): 일본에서 사용. 서도는 붓 획(stroke)의 힘과 에너지를 강조한다. 몸과 마음의 통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들은 서예와 집종의 훈련을 결합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명상을 응용한 선(禪) 서예는 일본의 승려, 학자, 비전문인들의 실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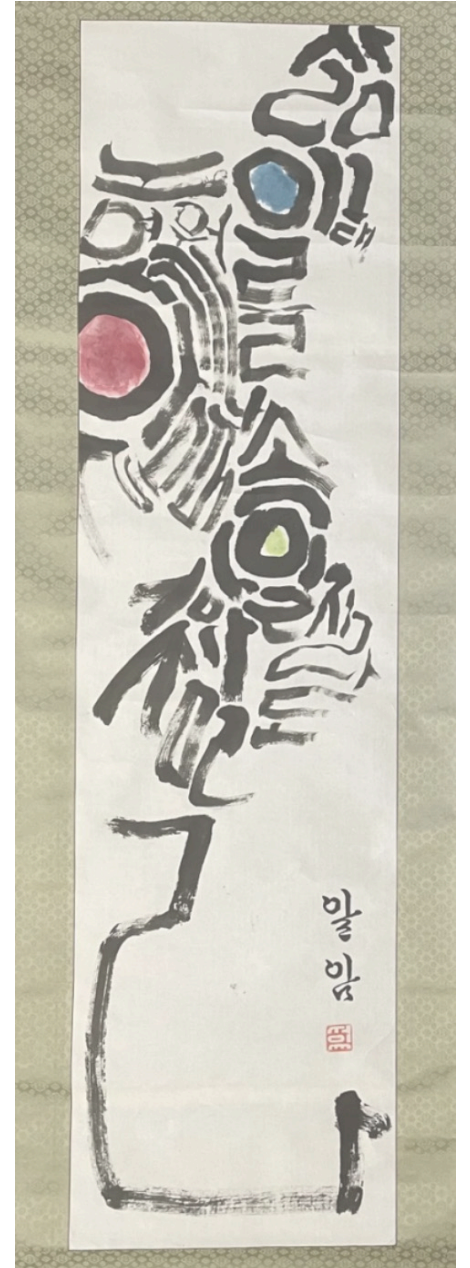
(3) 서예(書藝, Seoye): 한국에서 사용. 서예는 형태가 비교적 자연스럽고, 보다 예술적인 결과를 추구한다. 산, 강, 돌, 나무, 달이 그들의 외부 스승이다. 서예는 화합과 에너지를 동시에 추구한다.

서예가는 4가지 사항 즉, (1) 먹물의 농도와 깊이, (2) 붓 획의 강도, (3) 종이의 두께와 흡수성, (4) 붓 털의 유연성 등을 조절하고 응용하면서 수천 가지의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대가는 흰 종이에 무한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잇달아 나오는 서예작품은 우리의 고전이 되고, 그 고전에는 서예가가 인식하는 자연과 우리의 삶이 촘촘하게 담겨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의 역사도 추적할 수 있다.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우아한 예술로서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시각적, 감성적 표현이 모두 뛰어나다.

서예작품은 붓을 다루는 방법, 표현, 문체를 통한 호소력과 아름다움의 기쁨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술가의 도덕적 성실성, 인격, 감정, 심미적 감정 및 함양을 전달한다. 서예는 (1) 광범위한 rhythm 조합에서 line의 역동적인 실행 (2) 연속적인 붓 획의 무한 가변적 균형 (3) 흐름과 긴장 (4) 강도 그리고 (5) 각 문체(character)의 비율 등의 요소가 결정하며, 이들은 매체의 독특한 산물; 서예가의 성격; 그리고 순간의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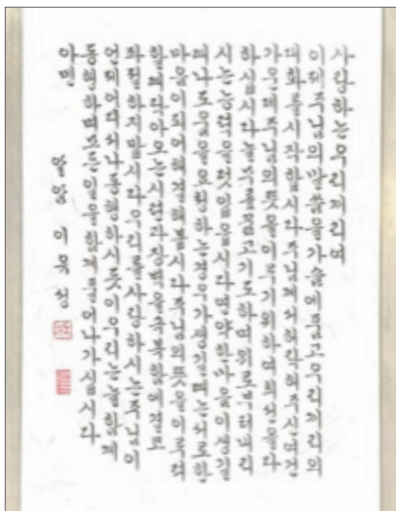
서예를 통해 언어, 눈, 손은 의식의 더 깊은 근원과 연결된다. 서예는 모두 기록이자, 예술의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문자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다음을



필자의 서예작품(작품명: 알렉산더 푸시킨의 시, 당대서예 (contemporary calligraphy), 18 in x 70 in)

통해 작가의 추구를 여전히 인식할 수 있다: (1) 구성 (2) 작문 스타일 (3) 붓 획의 리듬 (4) 먹물(잉크)의 음영 그리고 (5) 공간의 아름다움 등. 이들은 동양서예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호에서 下편 계속)



필자의 서예작품(작품명: 사랑하는 우리끼리, 한글공체 반흘림체, 26.5 in x 38.5 in)

공서체 대가 이철경 선생 제자로 입문

서예가 이유성 동문은

뉴욕에 사는 이유성 동문은 1955년 고등학교 시절 서예를 시작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아서 독학으로 공부했다.

당시 그가 쓴 서예들이 안방을 도배했는데 집에 찾아온 손님 한 분이 글씨를 보고 누가 쓴 것이냐 물었고 이 동문의 어머니는 “아들이 썼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그 손님은 나중에 흘림체 공서로 일가를 이룬 한국 대표 여성 한글 서예

가 꽃들 이미경(1918~2022) 이화여고 교사였다.

이미경 선생님은 역시 서예가로 명망이 높았던 자신의 언니 갈물 이철경(1914~1989) 금란여고 교장에게 이유성 동문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철경 선생은 조선 후기 궁중 한글서체에 가까운 정돈되고 깔끔한 궁체로 이름난 서예의 대가였다.

그가 남긴 서예 작품들에는 ‘신사임당 동상 명문’ ‘육영수 여사 묘비’ ‘유관순 열사 기념비’ ‘독립선언문’ 등이 있다. 두 자매는 항일 민족주의 교육자이자

국어학자인 이만규씨의 딸로 자매는 1958년 갈물한글서회를 창설해 후배 한글 서예가를 키워내는 데도 앞장 섰다.

이유성 동문은 이철경 선생의 문하생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갈물 서예전에 출품도 했다.

대학교수 은퇴후 서예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국제현대서예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여러 전 시회와 워크샵, 미국 주류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서예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동문 뮤지컬 가수 카이 “K-뮤지컬에 초대합니다”



뮤지컬 배우 첫 월드투어
5월 6일 카네기홀 공연
5월 11일엔 샌타모니카

모교 성악과 출신으로 대중 뮤지컬 가수 '카이'로 활동하고 있는 정기열(음대 00학번) 동문이 그의 월드투어 콘서트 '카이 인투 더 월드' 공연차 뉴욕과 LA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다. 뉴욕 카네기홀 공연은 5월6일 오후 7시30분, LA인근 샌타모니카의 브로드스테이지 공연은 5월11일 오후 5시다. 데뷔 16년 차 뮤지컬 스타배우인 정 동문은 지난 4월 28일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중국·미국·유럽에서 뮤지컬 팬들을 만난다. 한국 뮤지컬 배우가 단독으로 월드투어를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동문은 2008년 팝페라 가수로 데뷔해 뮤지컬 '드라큘라', '마리아투아네트', '레베카', '벤허' 등 굵직한 작품에서 커리어를 쌓았다. 그는 뮤지컬계의 가장 핫한 배우 중 한 명이다. 2015년 '팬텀'의 팬텀역으로 시작해 대극장 뮤지컬의 주역을 줄줄이 꿰차며 '믿고 보는 배우'의 입지를 굳혔다. 정 동문의 월드투어는 많이 색다르다. 뮤지컬 장르 특성상 단독 공연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첫 단독 콘서트가 열리면서 그 가능성이 열렸다. 당시 일본 제작사에 월드투어를 제안했더니 좋은 반응이 나왔고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답이 왔다. 미국 공연은 뉴욕 카네기홀에서 진행하

고 싶어서 직접 대관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기획사와 올해 창간 50주년 기념 사업을 기획 중인 미주중앙일보의 도움으로 계약과 공연이 성사됐다. 그러면 상대역이 없는 뮤지컬 배우는 어떻게 공연을 하게 되나. 피아니스트와 함께 하는 독창회 형식의 공연이다. 화려한 무대 의상과 세트가 없어도 음악만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뮤지컬도 결국 음악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더구나 모교 성악과가 대중음악이 아닌 클래식 음악이어서 이번 공연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피아노 한 대만 두고 마이크 없이 노래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이다. 반대로 뮤지컬 배우는 마이크를 차고 무대를 누비며 노래하는 것이 기본이다. 5월6일에 공연하는 카네기홀 웨일 리사이틀 홀은 주로 독창회나 실내악 공연이 이뤄지는 곳이다. 클래식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공연 기획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월드투어에선 어떤 곡을 선보일까. 우선 한국 창작 뮤지컬의 곡을 최소 하나 이상 부를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웅'부터 '프랑켄슈타인', '벤허' 같은 작품이다.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공연했던 뮤지컬 곡을 일본어로 부른다. 중국은 아직 뮤지컬이 대중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페라의 유령' 같은 유명 작품 위주로 공연한다.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 투어는 좀 다르다. 미국 뮤지컬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1930년대는 음악극의 흐름이 오페라에서 뮤지컬로 넘어가는 시기였다.이

때 '포기와 베스' 같은 작품이 탄생했다. 오페라와 뮤지컬의 특징이 모두 담긴, 미국이라는 나라처럼 복합적인 작품이 공연된다. “제가 추구하는 것이 뮤지컬의 클래식 화입니다. 뮤지컬 음악을 순수하게 정제해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상업적이고 화려한 뮤지컬도 좋지만 덜어낸 뮤지컬, 어쿠스틱한 뮤지컬도 매력이 있습니다.” 뮤지컬 무대는 소품과 의상, 조명, 무대 장치, 앙상블 배우들의 코러스가 중요한 요소다. 음향 효과도 풍부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독창회는 노래와 연기, 피아노 반주 뿐이다. 그래서 관객이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는 클래식과 뮤지컬이라는 이중 정체성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다고 밝혔다. “16년 전엔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크로스오버'나 '팝페라' 같은 단어가 생소했죠.” 정 동문은 “명문대 나와서 판따라 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면서 “지금은 좋아하는 예술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주의다. 하나의 장르로 그 범위를 좁히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뮤지컬을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 무료 공연도 재밌을 것 같다”며 “뮤지컬이 어느 순간부터 상업적인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대로 가는 경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네기홀 공연은 카네기홀 웹사이트(carnegiehall.org)에서 80~150달러에, 샌타모니카 공연 티켓은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50, 80, 120, 150달러에 구입이 가능하다.
장병희 편집위원

K-뮤지컬에 초대합니다!
 팬텀, 레미제라블, 베트맨, 레베카, 벤허, 삼총사, 마리아투아네트, 드라큘라 등 K뮤지컬 명곡마다 함께 공연한 카이가 LA에서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
 미주 중앙일보 50주년 기념
 2024 WORLD TOUR RECITAL
KAI INTO THE WORLD
 The Broad Stage
 (1310 11th St, Santa Monica)
 2024년 5월 11일 (토) 오후 5시
맛집 특가 전좌석 50% 할인
 VIP석 \$300 \$150
 S석 \$240 \$120
 A석 \$160 \$80
 B석 \$100 \$50
 EpicLive EMK YASMI
 213.368.2611 가계/매장 구입은 불가능해! PC나 휴대폰으로 앱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과 취소요.

뮤지컬 스타가수 '카이' 정기열 동문이 5월6일 뉴욕 카네기홀, 5월11일 샌타모니카 브로드스테이지에서 각각 공연한다. 정 동문은 지난 16년간 무대에 섰던 뮤지컬 명곡을 독창회 형식으로 선보이게 된다. [중앙일보 제공] 작은 사진은 5월11일 샌타모니카에서 공연이 열리는 공연 포스터다.

원고 모집합니다

글의 양 500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
 사진 고품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snuaausa17@gmail.com

미주 동창회는 미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29개 지역 동창회의 연합체입니다. 각 지역 동문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동창회보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서울대인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미주 동창회의 사명입니다. 알고 싶은 얘기는 주저 없이 보내주세요. 지역 소식은 물론 화제의 동문, 원로 초대석, 나의 건강 비결, 취미, 여행기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린 어디에 있어도” ... 관악연대 ‘끈끈한 인연’



이원영 동문이 오카리나를 불고 있다. 오카리나는 맑고 고운 음색을 내는 이탈리아의 전통 관악기로 흠으로 빗거나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LA출신의 이종호, 이충섭, 석호태(왼쪽부터) 동문은 애틀랜타에서도 끈끈한 동문애를 이어가고 있다.

Be Happy Everybody!

한국 돌아간 이원영 동문의 카톡 인사

아직 이 단톡방이 살아 있는 게 참 고맙네요. 동기 선후배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벌써 한국 들어온 지가 5년이 되었네요. 세월 참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들어와서 기자 연장전 3년 하고 백수된 지 1년 좀 넘었네요. 따져보니 33년을 기자생활 하나만 했네요. 먹고살려고 국영수했다면 이제 음미체 하며 살자며 소일하고 있습니다.

못읽은 책 읽고, 악기(오카리나, 기타) 배우고, 중국어 공부하고 수영하고 맨발걷기, 등산, 가끔 건강강연 뭐 이런 거로 보냅니다. 아, 술 마시는 시간

이 가장 긴 것은 아직 여전합니다. 내 40대를 불타게 만들어준 관악연대 참 고맙고, 동지들 많이 보고 싶네요.

나는 원래 체질이 토속이라 한국에서의 생활이 잘 맞습니다. 앞으로 자연치유를 바탕으로 한 의료시민운동 단체를 하나 구성해서 현대의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개선하는 일을 할까 구상 중입니다.

저의 40대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동기, 선후배님들 그림네요. 머리가 예뻐진 이충섭 군의 사진을 보고 마음이 동해 몇 글 올립니다. 비 해피 애브리바디!!

“반갑구만 반가워”

이종호 · 이충섭 · 석호태 동문 저녁 모임

지난 4월 15일 LA 출신의 이종호, 이충섭, 석호태 동문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타운인 둘루스(Duluth)의 한 식당에서 모였다. 지난 연말 석호태 동문의 애틀랜타 이주 이후 이들은 거의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먼저 조지아로 이주한 이충섭 동문(전기공학과 82)은 애틀랜타 근교 숲속에 널찍이 터를 잡고 텃밭 가꾸기와 독서 등으로 수년째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는 현재 특히 관련 연방 정부 공무원이다.

이종호 동문(동양사학과 81)은 2021년부터 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로 재직

중이다. 조지아에 와서도 애틀랜타 하이킹 명소들을 소개한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와 역사 교양서 ‘이민자를 위한 시민권 미국 역사’를 출간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연말 애틀랜타로 이주해 온 석호태 동문(건축학과 85)은 오자마자 ‘아키프로 컨스트럭션(Archipro Construction)’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벌써 새 프로젝트를 수주, 현장 공사 일을 시작했다. 석 동문은 캠퍼스 커플로 부인 황의경(의류학과 89, 건축학과 91) 동문도 이날 모임에 함께 했다.

LA중앙일보 편집국장, 논설실장을 끝으로 LA에서의 25년 삶을 마무리짓고 2019년 6월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이원영(사회대 81) 동문이 오랜만에 남가주 관악연대 단체 카톡방에 안부 인사를 올렸다. 이원영 동문은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온라인 글마당을 표방하는 온라인 신문 아크로폴리스 타임스를 출범시키고 80년대 이후 학번 모임인 남가주 관악연대를 이끌며 화려하고 재미있었던 관악연대의 전성기를 주도한 동문회의 열성 일꾼이었다. 인사말에서 언급한 ‘예뻐진 이충섭군’은 이종호 동문이 관악연대 단톡방에 올린 애틀랜타 사진(바로 옆 기사) 속 이충섭 동문의 사진을 보고 한 말이다.

미대 김경애 동문

‘듀얼 커넥션’ 2인전

남가주 김경애(Rebecca K Kim · 미대83) 동문이 지난 4월13일부터 LA리앤리갤러리에서 2인전을 개최했다.

‘듀얼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 김 동문은 추상성을 내포한 삶과 예술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이해, 극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을 25여 점 선보였다. 함께 전시한 작가는 데미안 서씨다.

김 동문은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된 캘리포니아의 자연환경인 사막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고, 가끔씩 작품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기독교의 상징을 나타내며, 그것은 작품의 영감으로



지난 4월13일 김경애 동문의 2인전이 개막됐다. 이날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주로 한지 위에 잉크와 아크릴화의 믹스미디어 작업을 하는 김 동문은 모교와 홍익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서울과 LA에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 오고 있다.

제 9회 중앙미술대전특선(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1986), 제 7회 대한민국의미대전특선(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8) 수상 경력이 있으며 현재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4월13일 오프닝 행사에는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김경숙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무상 동문 등1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개인전 개최를 축하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박세리 선수 위해 봉사하고 사진도 찍고

남가주 말수회 동문들 박세리대회 마샬 봉사

남가주 서울대 골프 동호인 모임인 말수회(마지막 수요일 골프 라운딩 모임)가 지난 3월 21일부터 나흘간 캘리포니아 팔로스 버디스 에스테이트의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투어 박세리챔피언십'에 마샬로 참가해 봉사했다.

한효동 말수회장은 “말수회로 초대장이 와서 동문들이 참가했다”면서 “한국 여자 골프계의 전설 박세리 선수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아울러 경기후 박세리 선수와 기념 사진을 찍는 등 매우 즐거운 하루였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홍조 동문을 비롯해 노명호 16대 미주동창회장, 이기준, 임춘택 남가주 동창회장, 한효동 말수회장, 박정모, 유재환, 이명선(상대58) 동문 부부가 참



박세리 선수와 봉사한 말수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석했다. 2018년에 창설된 이번 대회는 최근 2년간 디오 임플란트 LA오픈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지만 올해는 글로벌 투자기업 퍼힐스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박세리(Seri Pak) 챔피언십으로 대회 이름이 변

경됐다. 퍼힐스사는 LG가의 구본웅씨가 의장을 맡고 있다. 올해 LPGA투어에서 선수 출신이 개최하는 대회는 박세리 챔피언십과 5월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미셸 위 웨스트), 11월 에니카 드리븐(에니카 소렌스탐)

등 3개다. LPGA투어 대회에 선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례적이고 특히 한국 선수의 이름이 대회 명칭에 들어간 것은 박세리 챔피언십이 처음이다. 대회 총상금은 200만달러였고 144명이 출전했다.

박세리 선수는 1996년에 프로로 데뷔했고 1998년 미국 무대에 진출, 루키 시즌에 두개의 메이저 대회를 제패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US오픈에서 양말을 벗고 했던 맨발샷 모습은 당시 IMF로 시름에 빠져 있던 한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ESPN선정 역대 명장면 5개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이후 박인비를 비롯, 김인경, 오지영, 김송희, 민나온, 최나연, 이선화, 신지애, 박희영 등 소위 ‘박세리 키즈’라고 불리는 30여 후배 선수들이 LPGA에서 큰 활약을 펼쳐 전설로 불리고 있다.

박세리는 LPGA투어에서 5개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포함해 통산 23승을 올린 후 2016년에 은퇴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아름다운 숲속 · 호반 걸으며 봄 나들이

뉴잉글랜드 산우회 트레킹 올해 첫 모임에 12명 참석

뉴잉글랜드 산우회가 지난 3월 30일 누구나 봄 나들이 삼아 걸을 수 있는 보더랜드(Borderland) 스테이트 파크에서 올해 첫 트레킹을 즐겼다. 애초 23일로 잡았으나 날씨 관계로 일주일을 연기해 이날 첫 트레킹에 나선 산우회원들은 모처럼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아름다운 숲속과 호반을 거닐었다.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은 함께 걸으며 정답게 얘기를 나눴고 트레킹을 끝낸 후에는 인근 중식당으로 옮겨 못다한 정담을 주고 받았다. 이날 트레킹에는 모두 12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김경일(공대 58) 동문은 산우회장도 겸하고 있는 최진민(공대 71)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에게 “첼린징한 등산은 시니어



뉴잉글랜드 산우회 회원들이 지난 3월30일 보더랜드 스테이트 파크에서 첫 트레킹을 했다.

동문들이 감당하기 버거워 함께 하고 싶어도 주저했는데 이번에 시니어 동문들을 배려해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해주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최진민 회장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섬을 누비며 동문들의 친목은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매월 산우회 활동을 준비하고 이끄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4년 장학생 모집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가 2024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동창회측은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학생 가운데 현재의 도전과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및 멘토십을 통해 학업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한국인 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한국 출신 입양자로 학업 성적과 리더십이 뛰어나고 한국 전통 유산을 존중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교 11·12학년이다. 뉴잉글랜드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장학금은 2000~3000달러이며 특히 장학금의 독창적인 활용계획을 가진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모든 구비 서류를 5월15일 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n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snuaane.future@gmail.com)로 문의해도 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6월 중 열리는 동창회 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전개

박평일 동문의 오늘 아침도 'Good Morning!'

나는 매일 새벽 일어난 후 한 시간 동안 명상과 기도를 한다.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울리는 나만의 경건한 예배다. 그리고 하루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을 스쳐가는 지인들에게 'Good Morning!' 아침인사를 띄운다.

내가 모아둔 사진첩에서 평화로운 자연환경이나 동물들의 사진과 함께.

어제 아침에는 새벽 4시에 한국에서 날아온 한 카카오톡 메시지 때문에 전화에 매달려 있느라고 종일 경황이 없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 LA 거주 P선배로부터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한 하루 맞으세요 ... 거긴 벌써 반나절이겠네요. ㅎㅎ”

무척 기뻐다. 나의 'Good Moring!'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런 댓글을 달았다.

“바람 때문에 아침이 한참 늦게, 이제 사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 민성이는 내 아침인사에 “평일야, 이곳은 밤이야. 그곳은 몇시야?” 하고 묻기도 했다. 또 LA 지인들은 “이곳은 아침이 새벽입니다.”하고 댓글을 달기도 한다.

아무리 무식한 나라고 지구는 동글고 태양 궤도를 운행하며 하루에 한 차례

씩 자전한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리고 지구촌 어느 곳에도 매일 한 차례씩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진다는 것도. 다만 그 때와 시간이 장소에 따라 다를 뿐.

우리집은 세계의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에 위치해 있지 않다. 버지니아 작은 숲속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 우리집 벽에 걸려있는 모든 시계들은 버지니아 숲속 왕국의 룰에 따라 운행된다. 태양도 그 룰에 따라 떴다가 진다.

“내가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하는 이유이다.

아무튼 'Good Morning!'

나는 영어 Good 이라는 단어를 한자

‘선(善)’

나는 영어 Good이라는 단어를 한자 선(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Good Morning 은 ‘선한 아침’ 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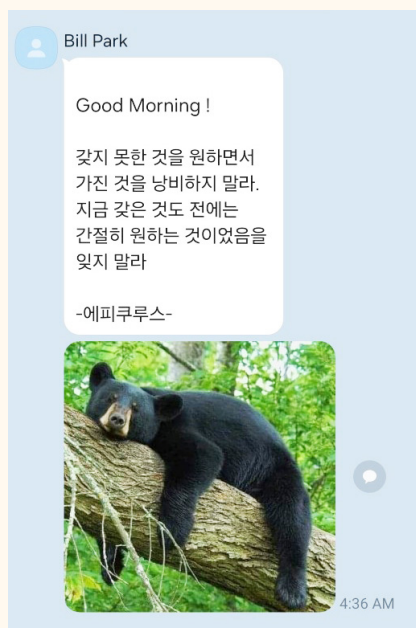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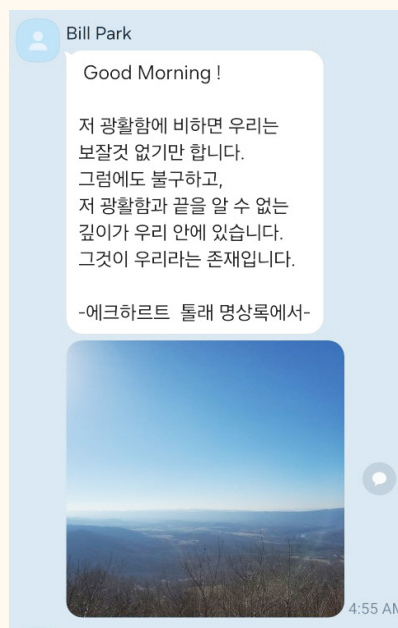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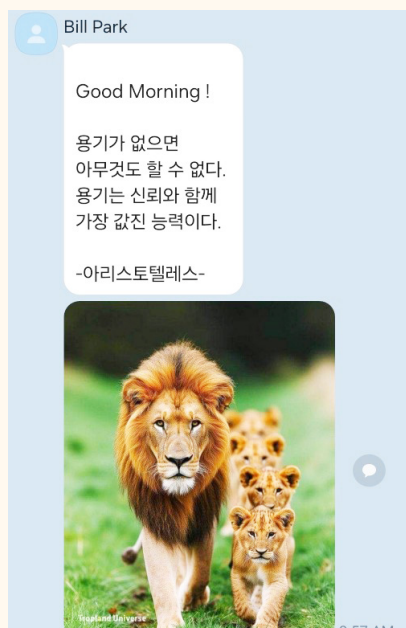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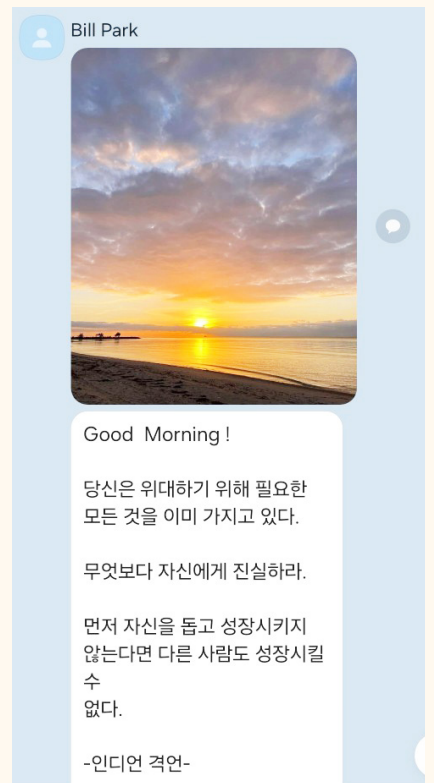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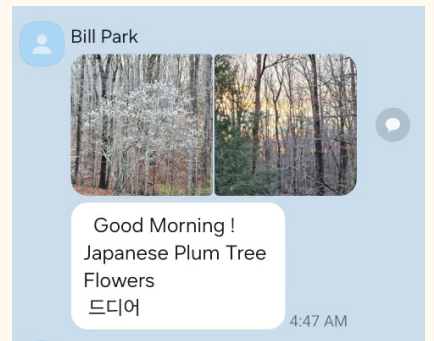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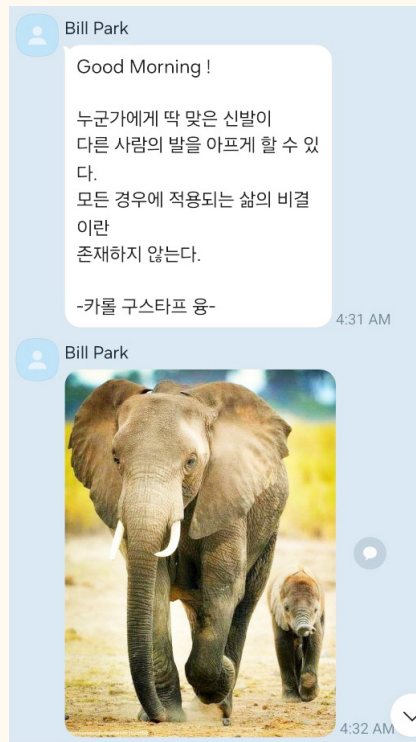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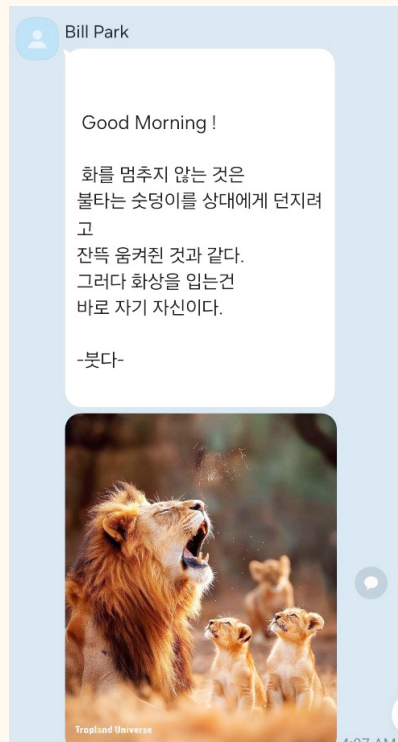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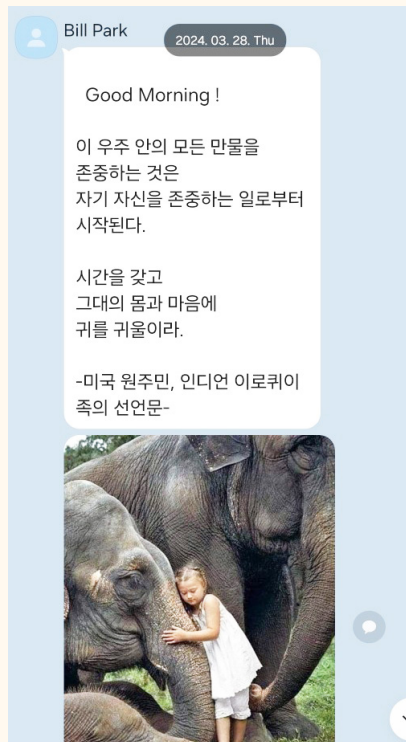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Good News(복음)를 나는 ‘선한 소식’ 으로 이해하고 있다.

공자는 아름다움 미(美)위에 착한 선(善)을 두었다. “미는 선으로 완성된다”는 의미다.

나는 오늘 아침도 지인들에게 'Good Morning!' 인사를 전한다. 선한 하루가 되시길 빌며.

박평일(농대 69)

생각해보니 아침마다 'Good Morning!' 인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답글 한 번 올리지 않은 것이 몹시 미안해진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음미해보면 좋은 글들이었다. 나의 하루를 'Good Morning!'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매일 아침 기원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예쁜 사진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지금 다시 뒤적여보니 많은 사진들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운이 안된다. 박평일 동문이 전한 'Good Morning!' 인사를 모아봤다.



이종호 동문의 구석구석 미국 여행

노스캐롤라이나 침니락



침니락 노스캐롤라이나의 최고 명승지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침니락 바위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다.

우뚝 솟은 절벽 바위...눈도 시원 마음도 시원

애쉬빌 남쪽 협곡 동남부 최고 절경 밭 아래 풍경 장관

어느새 4월도 중순, 조지아 숲은 초록이 완연하다.

지난 3월 하순, 봄바람을 타고 멀리서 벗이 찾아왔었다. 뽀뽀했던 20대를 함께 보낸 친구다. 머나먼 한국서 불원천리 마다치 않고 왔으니 그냥 보낼 수 없었다. 가장 좋은 접대(?)는 이곳 동남부의 내로라하는 명산을 찾아 함께 걷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찾아간 곳 중의 하나, 노스캐롤라이나 최고 명소 침니락(Chimney Rock)이었다. 미국 지도를 보면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는 주변 6개 주의 거의 정중앙에 있다. 애틀랜타에 살면 조지아 말고도 앨라배마, 테네시, 캐롤라이나 쪽 명소도 마음만 먹으면 가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가까우면 2~3시간, 멀어도 4~5시간이니 들루스나스와니에선 아침부터 서두르면 당일로도 어디든 다녀올 수 있다. 침니락도 그중의 하나다.

자타 공인 동남부 최고 절경이라는 침니락은 산 전체가 주립공원이다. 들루스에선 3시간 정도 거리. 빌트모어하우스로 유명한 애쉬빌 남쪽 핸더슨빌이라는 작은 산골 동네에 있다. 침니락은 불쑥 솟아오른 바위 모양이 마치 굴뚝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침니락 자체 높이는 315피트(96m)이며 해발고도는 2280피트(695m)다. 찾아가는 길은 설악산이나 속리산 들

어가는 것 같다. 구불구불 산동네를 돌고, 물길 따라 조심조심 가는 길이 웬지 낯이 익다. 압권은 침니락 바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다. 밭 아래로 울창한 숲과 개울같은 작은 강(Broad River)이 흐르고, 강을 따라 예쁜 집들이 동화처럼 늘어서 있다.

건너편 산은 한국의 수락산이나 도봉산같이 높고 기묘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어 풍광이 기가 막힌다. 눈을 조금 더 들면 그림 같은 루어 호수(Lake Lure)가 멀리 보이고, 아득히 겹겹의 산들이 너울처럼 일렁이며 지평선 너머로 가뭏없이 사라져간다. 그야말로 눈도 시원, 마음도 시원, 숨이 멎고,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풍경이다.

산 아래 도로 입구에서 강을 건너 침니락 공원 매표소까지는 3마일 정도 꼬불꼬불 가파른 길을 더 올라가야 한다.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내고 나서도 다시 1마일쯤 더 올라가면 침니락 바로 아래 주차장에 닿는다.

여기서부터는 철제 계단이 설치돼 있다. 아주 가파르지만 딱딱딱 올라가면 10분 정도면 누구든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70대 할머니도, 대여섯 살 꼬마도 씩씩하게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계단 오르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바위 속을 뚫고 만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침니락 바로 아래 기념품 가게 옆으로 난 터널을 따라 들어가면 입구가 나온다. 198피트 높이의 승강기는 1949년에 개통됐고, 이후 몇 차례 수리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가끔 운행이 중단되므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반려견은 같이 탈 수 없다.)

엘리베이터는 침니락 정상 바로 아래 기념품 가게 겸 휴게소로 연결된다. 이곳에서 간단히 커피나 스낵을 즐기며 산 아래 전망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침니락 정상은 스무 명은 너끈히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평평한 바위다. 한쪽으론 대형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고, 망원경도 있다. 다른 한쪽에는 온갖 풍상을 이겨낸 소나무 몇 그루가 늠름하다. 정상 어디에서든 큰 숨 한 번 들이쉬고, 두 팔 활짝 펼쳐 들고 밭아래를 굽어보면 옛날 천하 명산을 찾아다니며 호연지기를 길렀다는 화랑이 된 것만 같다.

정상 정복의 기쁨을 누렸다면 다음은 조금 걷는 것도 좋다. 숲과 협곡 구석구석 나 있는 트레일은 어디나 훌륭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침니락 바

위에서 가장 가까운 히코리 너트 폭포(Hickory Nut Falls) 트레일이다.

트레일은 침니락 바위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나오고, 주차장 쪽으로도 연결이 된다. 거리는 왕복 1.5마일로 40~50분이면 넉넉히 다녀올 수 있다. 트레일 주변은 다양한 동식물과 바위 등이 있어 자연 생태 학습장으로도 가치가 높다.

트레일 끝에는 404피트 높이의 히코리 너트 폭포가 있다. 폭포 바로 밑에서면 수직 암벽을 타고 수만 개 구슬처럼 와르르 쏟아지는 물줄기에 넋을 잃는다. 좌르르 활활 물소리도 장쾌해서 온갖 잡소리에 찌들었던 귀가 씻기고, 이리저리 복잡 답답했던 마음도 저절로 씻긴다.

☞ 여행 메모

침니락 일대는 1992년 영화 '모히칸족의 최후'의 촬영지였다. 또 침니락에서 내려다보이는 레이크 루어 호수 주변은 패트릭 스웨이지와 제니퍼 그레이가 열연했던 1987년 영화 '더티 댄싱'의 촬영지로 지금도 많은 연인들이 찾는다. 애틀랜타에서 당일 코스로 가능하며, 1박 2일을 계획한다면 가까운 애쉬빌 빌트모어하우스까지 일정에 넣으면 더 없이 완벽할 것이다.

▶침니락 주립공원 입장료 : 1인당 성인 17달러. 15세 이하 8달러, 5살 미만은 무료.

▶주소 : 431 Main St. Chimney Rock, NC 28720.(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서쪽으로 95마일 1시간50분,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남동쪽으로 210마일, 3시간20분)

글·사진=이종호(동양사학과 81)



히코리 너트 폭포. 수직 절벽으로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가 시원하다.

가난한 사막 나라에 석유 대박의 축복



위종민 박사
(공대 64)

사우디 아라비아는 1932년에 건국해서 92년밖에 안된 나라다. 국기를 보면 영어로는 킹덤 오브 사우디 아라비아로 약자로 미국의 USA 하는 식으로 KSA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를 이해하기 위해 국기부터 보면, 녹색 국기에는 흰색 아랍어가 쓰여 있고 그 아래에 ‘칼’이 있다. 국기에 있는 아랍어의 뜻은 ‘알라(신) 외의 신은 없다.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메신저라’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밑에 칼이 있다. 칼은 수호한다는 의미다.

‘이슬람’은 아랍어로는 ‘평화’라는 말인데 종교적인 의미는 ‘복종한다’는 것으로 신에 복종한다는 의미다.

지도를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라비아 반도는 세계 반도 중에서 가장 큰 반도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눈다. 홍해를 낀 서쪽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역을 헤자즈라고 하며 중부의 사막 리야드 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내접한 지역이다. 남쪽에 인접한 예멘과 가까운 높은 산간지역을 아시오라고 한다. 걸프만과 가까운 동부 지역에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있는 지역을 지산이라고 부른다.

중부 사막에 유목민의 조그만 오아시스 타운이 리야드였는데 ‘알 사우드’ 패 밀리가 사우디를 통일해서 1932년에 절대 왕정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을 세웠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왕이 7번째 통치자다. 초대 왕 이후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잇고 있다. 사우디는 일부 다처제로 4명의 부인을 허용한다. 그런데 이혼이 가능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혼하고 또 새 부인을 맞을 수 있다.

수도 리야드는 인구가 현재 650만으로 거대한 현대식 도시로 잘 개발돼 있다.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서해안의 제다로 400만명이 거주한다. 그 동쪽에 있는 종교 도시 메카는 인구가 200만이다. 또 다른 종교도시인 메디나는 130만명이 모여 산다.

홍해는 굉장히 깊은 바다로 평균이 1600피트이고 가장 깊은 데는 1만피트에 달한다. 바닥에는 진흙이 싸여 있고 퇴적층에는 니켈 등 금속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업화는 안됐다.

사우디의 초대 왕은 아부다지스로 알 아부다지스로 불린다. 아랍어에서 ‘알’은 영어 정관사 the과 같다. 그래서 가문 이름에 알을 붙인다. 1932년 반도를 통일한

사우디의 추억과 이슬람문화 이해

워싱턴주 지부가 주관하는 4월SNU포럼은 인문학 강연으로 남가주에 거주하는 위종민 동문이 강사로 나섰다. 그는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다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파견돼 28년간 근무했다. 제 2의 고향같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정보와 동문들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연이다.



SNU포럼에서 공개된 사우디 아라비아의 종교 수도인 메카의 카바 신전(가운데 네모난 모습)과 모스크의 모습. 신전을 둘러싼 하얀 부분은 순례자들이 입은 흰옷 때문이다. [위종민 동문 제공]

일부다처제로 4명까지 부인 둘 수 있어 2200만 인구에 1000만 외국인노동자

알사우디 가문의 아라비아라고 해서 왕국이름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됐다.

초대왕은 일부다처제를 잘 지켜서 부인이 40명 이상, 자녀는 100여 명 이상이었고 아들만 46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왕은 사우드, 세 번째는 파이잘이다. 네 번째는 칼리드 빈 칼리드, 다섯 번째는 파드, 여섯 번째가 압둘라 왕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특이하게도 왕위를 형제에게 계승하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초대왕의 손자가 왕이 된 경우는 아직 없고 현재 국왕은 살만인데 이미 90세이며 건강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아들인 38세의 모하메드 빈 살만(MBN)이 총리겸 왕세자로 나중에 왕이 되면 초대왕의 손자로서는 첫 왕이 된다.

이슬람에는 이슬람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5개의 기둥이 있다. 첫 번째는 ‘사단’이라고 해서 ‘알라 이외의 신은 없다. 모하메드가 알라의 사도이다’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라’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코란에 나오는 정확한 발음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다르더라도 종교가 같으면 암송을 해서 그 영향으로 아랍어가 각 나라에서 계속 공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라비아의 숫자는 0부터 1 2 3 4에서 19까지 실제 쓰고 있다. 달력은 1월달부터 12월까지이고 모두 합치면 10일 부족해 355일이다. 가장 알려진 9번째 달이 바로 라마단이다. 라마단 때는 종교 의식이 전부 금식을 해야 된다. 12번째 달은

‘두 알 하지’라고 하는데 보통 ‘하지’라고 한다. 이 달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평생에 한 번은 메카에 참배를 해야 된다.

이슬람을 받치고 있는 5개의 기둥를 마저 살펴보면, 라마단 금식이 세 번째로 ‘삼’, 네 번째는 자카트(종교세금 2.5%), 다섯 번째는 하지(메카 참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교로 이슬람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로 모스크 안에 들어가면 전부 바닥이 콘크리트 같은 것이고 카펫만 깔려 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관공서 문도 닫았고 회사 문도 닫고 가게들도 문을 닫는다.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향해서 세계 각국에서 기도를 한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보러 와서 처음으로 지은 신전이다. 이슬람에서는 구약 성경은 그대로 믿고 신약 성경은 예수를 하나의 예언자로 믿는다. 이슬람에서 첫 선지자는 아담, 두 번째는 아브라함, 세 번째는 모세, 네 번째는 예수라고 말한다. 다섯 번째는 모하메드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예언자라고 믿고 있다.

선지자인 모하메드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머슴으로 들어간 과부 집에서 일을 잘해 과부의 눈에 들어서 25세에 45세인 부자 과부와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계시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신교가 대세인 메카에서 박해로 살 수 없어서 메디나로 612년에 이동했고 62세에 죽었다. 무덤은 메디나에 있

지만 승전은 예루살렘에서 했다고 한다.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메카를 향하는 나침반을 주며 사우디는 법이 없고 코란에 따른 샤리아법만이 있다. 또한 라마단 금식을 할 때 밤이 되면 축제 분위기가 된다. 파티에 가서 손으로 음식을 먹고 오른손을 사용한다. 왼손은 쓰지 않는다. 돼지고기는 더러운 동물이라고 해서 절대 먹지 않는다.

종교 경찰인 무타와가 남녀 합석을 막고 데이트를 해도 안 되게 단속한다. 여성들이 입는 까만옷을 아바야라고 하고 얼굴을 가리는 것을 시잡이라고 한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은 니카프라고 한다. 최근에 빈살만 총리가 근대화 정책을 펴고 있다. 덕분에 5년전부터 관광 비자도 발급해주고 있으며 비이슬람 관광객을 위해서 메디나도 개방했다. 아직 메카는 이슬람 신자이외에게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코란에 의해서 산아 제한이 없으므로 생기는대로 모두 낳는다. 인구는 2200만 정도인데 1985년에는 불과 900만이었다. 현재 외국 노동자가 1000만명이 사우디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 사우디 남성이 어느 정도 머리가 있으며 대학을 나와 직장을 쉽게 구하고 출세도 쉽다.

사우디의 대박은 사실 미국의 힘이 컸다. 1933년에 셰브론 회사에서 동쪽을 탐사해서 1938년에 석유를 찾았고 10년 후인 1948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지대가와 필드를 찾아내 사우디를 돈방석 위에 올려놨다.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돼 국토개발을 한다고 국토 곳곳에 미국 수준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원래 사우디 정부 지분이 20%에 불과 했던 아람코는 100% 국유화 되면서 아라비아의 아메리칸 컴퍼니라는 의미의 ‘아람코’라는 이름을 바꾸려 했으나 워낙 유명한 이름이어서 그냥 ‘사우디 아람코’로 이름을 정했다. 현재 세계 원유 매장량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사우디는 머리만 좋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다. 원유만 팔아서 부가가치가 덜하니까 원유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산업도시를 2개 지었다. 산업 다양화를 위해 정유 공장도 화학 공장을 많이 세우고 있고 담수화 공장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경제성이 없지만 사우디는 석유가 많이 나니까 에너지를 싸게 수출해서 담수화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낮잠 줄이고 간식·약·설탕·술 섭취 줄여야

건강에 나쁜 습관 고치기

최근까지만 해도 노년층이 팬데믹으로 마스크를 쓰고 위생에 적극적이었던 덕분에 코로나 이외의 질환으로는 고통을 크게 겪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LA한인 사회 유력 인사 중 한 명은 급성 폐렴으로 그의 표현대로 '죽었다가 살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평소 건강에 좋지 않은 나쁜 습관 몇 가지를 알아보고 해결책도 살펴봤다.

설탕 '숨겨진' 음식 조심해야 하루 이틀 '금주의 날' 설정 '걱정하는 시간'만 걱정해야

나쁜 습관이 쉽게 고쳐지면 습관도 아니다. 노년층은 누구나 잘 안다. 건강 전문가들은 나쁜 습관을 식별하는 것이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조언한다. 연구에 따르면,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을 재설계하고 나쁜 습관을 더 나은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나쁜 습관은 의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다.

편하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대수냐 싶지만 연구에 따르면 오래 앉아 있으면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암,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이 증가한다. 어느 정도나 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45세 이상 성인 7985명의 활동 수준을 추적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은 앉아 있는 시간이 짧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성이 거의 2배였다. 미국인들이 앉아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층은 하루 평균 6시간 앉아 있다.

해결하려면 타이머를 설정해 보자. 30분 또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알람을 휴대폰에 설정하라. TV시청 때도 제자리 행진을 하거나 광고 시간에 스쿼트를 몇 번 하라.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매시간 2분 동안 안 앉아 있고 가벼운 활동을 2분씩 하면 사망 위험을 33% 낮춘다.

▶역시 쉬지 않고 간식을 먹는 것이다.

간식 자체가 건강에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자주 간식을 먹느냐, 많이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나쁜 습관이 될 수 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인은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간 스낵을 선택했으며 인기 있는 간식은 감자칩(56%), 초콜릿(55%), 캔디(45%)였다. 지난 30년간 하루 평균 간식 섭취량이 2배 증가했다.

패밀리팩에서 몇 개 집는 경향이 있다면 의외로 많이 먹게 된다. 차라리 조금만 집고 나머지는 팬트리에 치워두라. 이런 통제가 안되면 차라리 견과류, 요거트, 치즈스틱, 채소, 과일을 가까운 곳에 놔두고 먹어라.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정신 건강이 불량해지고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다.[빙닷컴copilot생성]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다.

당분이 많은 식단은 심장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암,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심장협회는 남성의 경우 하루 9티스푼, 여성은 6티스푼 이하를 권장한다. 하지만 평균적인 미국 성인은 매일 17티스푼의 설탕을 먹는다.

섭취량 목표를 설정해보라. 숨겨진 설탕을 찾기 위해서 내용물 레이블을 확인해야 한다. 여성은 24g(6티스푼)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하고 남성은 36g(9티스푼)이어야 한다. 입에 단 것이 당기면 간식 대신에 만다린 오렌지, 망고, 파인애플을 선택하는 게 좋다. 물론 과일은 단맛이 나지만 그나마 비타민과 섬유질을 제공한다.

▶역시 과음이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와인 한 잔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 심장 및 간 질환, 뇌졸중 및 암을 유발한다. 너무 많은 알코올은 우울증, 불안 및 불면증을 일으키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과음은 여성은 주당 8잔 이상, 남성은 15잔 이상을 말한다.

과한 것이니 적당하게 줄여야 한다. 주중 하루나 이틀 동안은 금주의 날을 지정하거나 주말에만 음주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또한 속도도 중요하다. 천천히 마시고 음주 후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것도 좋다.

▶충분히 자지 않는 것이다.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정신 건강이 불량해지고 심지어는 조기 사망에도 이른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노년층은 매일 밤 7~9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해야 한다.

밤에 제대로 자려면, 낮에 낮잠을 자지 않는 게 좋다. 가끔 10분에서 15분 동안 잠시 낮잠을 자는 것은 괜찮지만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평소에 낮잠을 자는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는 게 낫다.

만약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는 게 낫다. 불안해 하지 말고 일기를 쓰거나 조명을 어둡게 유지하며 집 주변을 걷는 게 낫다. 가벼운 활동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은퇴한 노년층의 경우, 특별한 일정이 없더라도 또한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 취침 시간 4시간 이내에는 과식, 카페인 및 알코올

을 피하라.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다.

이유가 있어서 약을 먹는 것이지만 한번에 5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노년층에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낙상 및 인지 장애를 포함한 약물 상호 작용 및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만성 통증에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 옥시코돈(OxyContin, Percocet) 및 하이드로코돈(Vicodin)과 같은 오피오이드가 가장 우려되는 약물 중 하나다. 항불안제와 수면 보조제도 위험할 수 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Xanax, Klonopin)은 자동차 사고 및 시니어의 낙상과 관련이 있다. 알러지 약인 베나드릴(Benadryl), 진통제인 애드빌 및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 의약품도 너무 오래 먹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많은 노년층이 의문의 여지 없이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약을 복용한다. 이런 경우, 주치의나 약사와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더 자주 함께 앉아서 각각의 약에 대해 이야기한다. 약을 복용하는 이유, 증상을 관리하는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치료하기 위한 비약물적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본다. 침술, 척추 도수 치료, 요가, 태극권 및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모두 만성 요통에 도움이 된다. 또는 불안이 있는 경우 명상, 요가 또는 심리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걱정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렇게 항상 걱정하는 것은 신체를 끊임없는 긴장 상태나 도피 준비로 만들어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장기적으로 만성 스트레스는 편두통, 수면 장애, 면역 체계 억제, 뇌졸중 및 심장마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걱정하지 않고 살려면 걱정할 시간 미리 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매일 15분 동안 자신이 걱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 정해진 시간 외에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할 때마다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뇌를 훈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물론 걱정은 쉽게 떨쳐지지 않는다.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걱정이 일상적인 기능이나 삶을 즐기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면 꼭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나 혼자 일등에 대한 호소문



이영목
(공대 59)



자격지심 열등의식 자극해 갈라치기하는 현실 귀천 없이 골고루 섞여 살아야 안정된 사회

먼 옛날 씨족사회랄까 그저 인구가 천 명 정도로 끼리끼리 살 때에는 추측컨대 말의 단어도 많아야 천 개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나 씨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부족사회에서 국가로 발전하면서 마치 한 개의 단어가 뿌리가 되고 이것이 자라서 여러 가지를 이룬 것처럼 여러 단어를 만들어 온 것 같다. 예를 들자면 '놀다'라는 단어에서 흥겨운 뱃노래 같은 노래가 나오고, 흥이 나는 춤을 추는 장대놀이 탈춤놀이가 나오고, 내기를 즐기는 노름이 나오고, 즐겨보는 말투로 흥! 잘들 노네, 하는 등 노래, 놀이, 노리, 노름, 노네 등의 단어가 파생 그리고 생겼다.

그 중에서 풍성하게 단어의 가치를 많이 친 말이 '치기'가 아 니가 싶다.

본래 생활에서 나뭇가지 치기, 개천 도랑에 고기 잡으려고 그물치기 정도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자치기, 딱지치기, 옛치기로부터 씨름에서 엮어치기가 있는가 하면 소매치기, 날치기, 바꿔치기 등 단어가 다채로 워졌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치기'의 단어의 흐름 중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갈라치기'다.

지금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과 경쟁의 세계로 매우 혼잡스럽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바로 갈

라치기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갈라치기는 말그대로 사람들을 두 패로 갈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쟁의 세계로 내몬다.

그렇다면 그 누구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가?

틀림없이 스스로가 각 분야에서 1등 그룹이 아니라 2등 그룹, 다시 말해서 '나는 일등 시민이 아니고 이등 시민이다 그리고 나는 일등으로 올라갈 찬스도 소위 사다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격지심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서 스스로 사회 구성의 2등 시민이라는 자격지심에 빠진 사람들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지어낸 단어라고 생각된다.

사회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2급 직장이나 1급 직업이나 하며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도 나도 2급 직업을 스스로 경멸하며 자기는 그런 직업 안 택하겠다 하고 있다. 가정부? 배달부? 포장마차? 건설 잡부? 이 따위 직업 내일 굶어도 나는 안한다 하고 있다는 말이다.

대학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나는 대학을 가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정부 고위직 등 소위 고급직을 갖겠다고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동의해야 할 사실은 소위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급인지 고급인지 하는 직업만으로는 세

상이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은 일등 시민, 이등 시민들이 골고루 섞여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를 괴롭히는 현실은 '나는 일등 시민이 아니고 이등 시민이다 그리고 나는 일등으로 올라갈 찬스도 소위 사다리도 없다'라고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증오하는 계층의 사람들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갈라치기를 이용한다는 현실인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대학입학을 위하여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나는 대학을 가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정부 고위직 등 소위 고급의 직을 갖겠다고 하는 현실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건전한 사회, 안정된 사회, 질서 있는 사회는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급인지 고급인지 하는 직업만으로는 굴러갈 수 없고 일등 시민, 이등 시민들이 골고루 섞여 살아야 함을 인식시켜야 하는데 말이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서울대학 졸업생들은 이러한 사회에서 아마도 소수점 이하 0.2, 0.3%의 극소수 1급의 집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면 시기 질투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속된 말로 계급장을 뽐 수도 없습니다. 이력서나 신상명세서에 서울대학 졸업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 졸업

생들은 사회에 2급 시민이라고 겸손한 척하며 이야기 하면 누구 조롱하는 것이나 하며 핀잔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러하니 우리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보내야 하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1급 2급 운운하는 직업이라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고 그런 것이 존재할 수도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과 바다 잠수를 하며 해삼 전복을 따는 해녀와 어느 것이 좋은 그리고 가치 있는 직장입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 사회에 더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불타는 건물에 뛰어들어가는 소방 경찰과 교회에서 성가대를 인도하는 피아노 반주자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들에게 물어 봐야 합니다.

둘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재주를 주어서 서울대학생이 되었으니 신에게서 받은 재주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의사가 되어 병을 고쳐 주고, 누구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매일 유튜브를 보면서 즐거움을 갖게 하고, 누구는 변호사가 되어서 사회의 약자를 돌보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호소합니다. 분명 우리 서울대학 졸업생들은 1등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1등의 자리매김은 신에게서 받은 선물임과 동시에 사회에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1등자리 매김의 자부심만 갖지 말고 신이 명령한 의무도 다 잘 합시다.

이영목 동문은 포토맥 포럼을 만들어 이끌고 있는 워싱턴DC 지역 오피니언 리더다. 소설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워싱턴의 도박꾼' '워싱턴 달동네' '워싱턴에서 3박4일' 등 여러 권의 소설책을 펴냈다. 워싱턴 DC는 물론 한국 문단에도 여러 작품들이 소개됐다. 워싱턴DC 동창회장과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했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17@gmail.com 로 보내주세요.





장소현

(미대 65, 시인, 극작가)

시끄럽고 거칠기 짝이 없던 한국의 총선판이 끝났으니, 이제는 더러운 막말과 욕설도 자취를 감추고, 곱고 아름다운 말의 시대가 열리려나 기대해본다. 하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다.

그럴 때 절실하게 떠오르는 것이 말무덤이다. 말(馬)이 아니라 말(言)을 묻은 무덤, 이른바 언총(言塚)이다. 한 문학잡지에 실린 시(詩)를 읽다가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았다. 우리 조상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감탄이 나온다.

자료를 검색해보니, 말무덤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한 대마을에 있고, 약 400여 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당연히 절절한 전설이 있다. 내용은 이렇다.

이 마을은 예부터 각성바지들이 살던 곳인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문중 간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사

오늘의 말무덤을 만들자

소한 말 한마디가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지자 마을 어른들이 해결책을 모색했다. 갑론을박 중구난방 요란한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단칼에 해결책을 내놓는다.

마을을 둘러싼 야산의 형세가 마치 개가 짖는 모습과 비슷하니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모두 사발 하나씩을 가져와, 싸움의 발단이 된 거짓말, 상스러운 말,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 등을 사발에 담아 구덩이에 묻으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대로 했더니, 마을에서 싸움이 사라지고 평온해져 지금까지 이웃 간에 두터운 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말 무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전설 따라 삼천리...

말무덤 둘레에는 큰 바위 13개가 둘러 있고, 바위마다 말에 대한 말이 새겨져 있다. 이걸 '격언비' 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예천군이 선조의 지혜가 담긴 말무덤을 산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들여 새로 정비한 것이라고 한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 두부

사 온다.

-혀 밑에 죽을 말 있다.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

-화살은 쏘고 주위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말 뒤에 말이 있다. 말이 말을 만든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내 말은 남이 하고 남의 말은 내가 한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말은 적을 수록 좋다.

-말 잘하고 징역 가라.

이 말들만 잘 새기며 살아도 세상이 한결 평화로워질 것 같다.

말무덤에 가보고 싶다. 실제로 만져보며 마음을 닦고 싶다.

말무덤에 가보는 것보다 먼저, 우리 동네에도 마을마다 집집마다 말무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말무덤이 있으면, 세상이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틀림없다.

그렇다면, 말무덤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한국의 정치판과 사이버 언론, 악성 댓글이 넘

쳐나는 온라인 세상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말 같은 말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막말과 욕설, 거짓말을 경쟁하듯 쏟아내니 시끄럽고 짜증스러워 견딜 재간이 없다. 분노가 치민다. 이를 보는 선량한 '동료시민' 들의 언어마저도 덩달아 사나워지고 있다. 세종대왕께서 땅을 치며 통곡하실 지경이다.

이런 세상을 조금이라도 정화하기 위해 곳곳에 오늘의 말무덤을 만들어 세우자. 우선, 여의도 나으리들 동네에 큼직하게 하나 만들어 세우자. 마침, 한국의 국회의원사당은 지붕이 무덤의 봉분처럼 둥글게 생겨 먹었으니, 따로 무덤 만들 필요도 없이, 거기에다 몸쓸 말, 거짓말, 욕지거리, 막말 등을 몽땅 다 모아서 묻어버리면 되겠다. 다만, 묻어야 할 말이 워낙 많아서 금방 가득 차버릴 것 같아 걱정이다.

그나저나, 말무덤에 묻은 나쁜 말들이 썩어 없어지는 데는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 플라스틱처럼 천년만년 썩지도 않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큰 일인데... 아, 바로 썩어서 비료가 되는 인공지능을 발명하면 되겠구나!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하하하'는 만국 공통어, 왜일까

쩌면 웃음은 인간의 DNA에 깊숙히 새겨져 있지 않나 싶다.

웃음 하면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구봉서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하나로 70년대 어려웠던 그 시절 얼마나 사람들을 웃겼는가. 구봉서가 만들었다기 보단 코미디 작가가 써준 걸 몸짓 개그로 담아 냈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웃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처음 지어낸 인물은 하버드 출신의 석학 윌리엄 제임스(1842~1910)다. 실용주의를 창시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그리고 의학자다.

어느날 젊은 여성이 그를 찾아왔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남자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어느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제임스가 처방을 줬다. "웃으세요." 그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제임스의 주문대로 웃다 보니 그 여성은 행복해지고 그 결과 삶이 달라졌다. 멋진 남자를 만나 가정도 꾸리고.

제임스가 살았던 때만 해도 웃음의 의학적 효능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요즘은 온갖 연구결과가 쏟아져 나와 이만한 만병 통치약도 따로 없다. 웃는 순간 엔돌핀이 펄펄, 행복을 느낄 때 생성된다는 도파민 호르몬도 샘솟듯 나오고.

크게 한 번 '하하하' 웃으면 몸 속의 근육 650개 중 230개가 움직여 목과 얼굴, 복부 근육이 강해진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주름살도 쩍악 퍼진다니 보톡스 맞을 일이 없겠다. 1분 동안만 웃어도 10분 동안 에어로빅과 조깅을 한 효과를 낸다는 등 웃음 예찬론은 끝이 없다.

역지로 웃어도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 뇌는 거짓 웃음도 진짜로 착각해 웃겨서 웃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선 그다지 많이 웃지 않는다. 사람의 일생을 80년으로 볼 때 26년은 잠을 자고, 21년은 일을 하지만 웃는 데는 고작 22시간을 쓸 뿐이다. 웃으면 복이 넉넉해 들어온다는 데 왜 이리

인색한지. 무심코 흘러 보내서 그렇지 잘 보면 일상 속에서 웃을 일이 적지 않은데도.

남가주의 미셸 박 연방하원의원은 가히 '선거의 여왕'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한인 1세 정치인이다.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비결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 바로 "잘 웃어서요" 였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웃으라고 해서 그냥 웃는다고 한다.

솔직히 '세계 웃음의 날(World Laughter Day)'이란게 있는 줄 몰랐다. 달력을 보다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5월 5일)이 '하하하의 날'인걸 알았으니. 샌디에이고에선 웃음 경연대회도 열린다고 한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더해 짜증만 안겨주는 정치판 등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지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차 안에서라도 웃는 연습을 해보자. 웃음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지 않은가.

웬 애완견이 이렇게 많은지.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몇 번이나 맞닥트린다. 얼마전엔 꼬리를 흔들며 주변을 맴돌기에 '멍멍'하며 손을 흔들어 줬다. 그러자 개주인이 '바우와우'하며 씨익 웃음을 날렸다. 아 그렇지. 영어로는 'bow wow'라고 해야지. 그런데 개짖는 소리가 내 귀엔 '멍멍'으로 들리는데 미국인 들에겐 왜 '바우와우'일까.

고양이 울음소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에겐 '야옹'이지만 영어권에선 얼토당토 않게 '미아우(meow)'다. '오잉크 오잉크(oink oink)'는 또 어땡고. '꿀꿀' 돼지다.

의성어는 참으로 요지경이다. 딱 하나 예외가 존재하는데 '하하하(ha ha ha)' 곧 웃음소리다. 미국서나 한국서나 일본서나 독일서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하하하'다. 심지어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되다시피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부족들에서도 '하하하'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어

www.snu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용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김창수 (약대 64)
뉴욕 - 오인석 (법대 58)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손재옥 (가정 77)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뉴욕 - 김현중 (공대 63)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익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웅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균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호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종률 (사대 51)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용남 (농대 70)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추재옥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홍기 (문리대 61)
방은호 (약대 43)
박평일 (농대 69)
서휘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강재호 (상대 57)
손석보 (공대 68)
윤정옥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시카고
강영국 (수의대 67)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옥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트랜드
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04,000
(7/1/23 - 12/31/23 17대 1차 회기 6개월)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3.12.31;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 강경수 (법 58)
- 강동성 (법 59)
- 강윤희 (간 46)
- 강창만 (의 58)**
- 강춘자 (간 69)
- 강호석 (상 81)
- 고남규 (의 68)
- 고석규 (치 65)
- 권기상 (대 72)
- 권봉성 (문 64)
- 김경 (문 63)**
- 김경수 (사 58)
- 김건진 (문 62)**
- 김동석 (음 64)**
- 김영배 (미 61)**
- 김경수 (치 54)
- 김경옥 (미 61)**
- 김경자 (미 60)
- 김광은 (음 56)
- 김난영 (공 53)
- 김원탁 (공 65)
- 김동산 (법 59)**
- 김명숙 (농 58)**
- 김명희 (간)
- 김문엽 (농 83)
- 김범수 (문 61)
- 김병완 (공 58)**
- 김상찬 (문 65)**
- 김석홍 (법 59)
- 김성호 (법 64)
- 김성환 (의 65)**
- 김수향 (간 68)**
- 김순갈 (법 54)
- 김순자 (치 57)**
- 김영덕 (법 58)**
- 김옥경 (생 60)**
- 김유주 (간 69)
- 김용채 (문 61)
- 김일영 (의 65)
- 김재영 (농 62)**
- 김정애 (간 69)
- 김정호 (농 59)
- 김종표 (법 58)
- 김준일 (공 62)
- 김창진 (공 77)
- 김태환 (문 78)
- 김태윤 (법 53)
- 김택수 (의 57)**
- 김학철 (의 55)**
- 김혜숙 (미 68)**
- 김홍목 (문 60)
- 김희창 (공 64)
- 나두섭 (의 66)**
- 나승욱 (문 59)
- 노명호 (공 61)**
- 문병길 (문 61)
- 마동일 (의 57)
- 민영기 (공 65)**
- 민일기 (약 69)
- 박명근 (상 63)
- 박민식 (수 65)
- 박부강 (사 64)
- 박상원 (대 20)
- 박원준 (공 53)**
- 박용 (문 89)**
- 박우선 (공 57)**
- 박은숙 (미 62)**
- 박인수 (농 64)**
- 박인창 (농 65)
- 박일우 (의 70)
- 박임하 (치 56)
- 박자경 (생 60)
- 박종수 (수 58)**
- 박찬호 (공 58)
- 박찬호 (농 63)
- 박한영 (치)
- 박혜옥 (간 69)
- 박호현 (의 52)
- 박흥근 (공 64)**
- 박희자 (음 68)
- 방명진 (공 73)**
- 배동완 (공 65)**
- 백옥자 (음 71)**
- 백혜란 (미 70)
- 벤자민 홍 (문 53)
- 서동영 (사 60)
- 서명희 (농 67)
- 서세진 (음 62)
- 서치원 (공 69)**
- 성낙호 (치 63)**
- 성주경 (상 68)**

- 손갑수 (약 59)
- 손기용 (의 55)**
- 손학식 (공 61)
- 송명국 (문 81)
- 송요준 (의 64)**
- 신건호 (법 63)**
- 신동국 (수 76)
- 신영찬 (의 62)
- 신정연 (미 61)
- 양승문 (공 65)**
- 양승조 (음 70)
- 양은석 (음 70)**
- 양태준 (상 56)
- 오선웅 (의 63)
- 오찬수 (약 57)
- 오형원 (의 53)
- 우춘식 (상 61)
- 원종민 (약 57)**
- 위중민 (공 64)**
- 유덕영 (공 57)
- 유이중 (농 74)
- 유석환 (치 55)
- 육태식 (의 61)
- 윤경민 (법 55)**
- 윤영돈 (법 59)
- 윤희성 (치 65)
- 이강훈 (치 65)
- 이건일 (의 62)
- 이경희 (인 83)
- 이기준 (법 54)
- 이방기 (농 59)
- 이법식 (공 61)
- 이상무 (의 56)
- 이서희 (법 70)
- 이성숙 (공 56)
- 이성자 (간 76)
- 이소희 (의 61)**
- 이영수 (상 60)
- 이영일 (문 53)**
- 이영현 (간 70)
- 이용한 (공 64)
- 이원택 (의 65)
- 이원익 (문 73)**
- 이익삼 (사 58)
- 이장길 (치 63)**
- 이재권 (법 56)
- 이정근 (사 60)
- 이정남 (공 63)
- 이정화 (공 52)
- 이종모 (간 69)
- 이준호 (상 65)
- (고)이중희 (공 53)
- 이진영 (의 65)
- 이창무 (공 54)**
- 이창신 (법 57)
- 이재진 (문 55)
- 이호 (음 92)**
- 임동규 (미 57)**
- 임동호 (약 55)
- 임문빈 (상 58)
- 임석중 (공 50)
- 장기열 (치 55)**
- 장기창 (공 56)
- 장대욱 (음 57)
- 장동석 (문 66)
- 장문섭 (공 69)
- 장소현 (미 65)
- 장원경 (미 73)
- 장윤희 (사 54)
- 장인숙 (간 70)
- 장정용 (미 64)**
- 장춘호 (공 56)**
- 전경배 (의 69)**
- 전낙관 (사 60)
- 전범수 (농 71)
- 전상욱 (사 52)**
- 전원일 (의 77)
- 정규희 (의 64)**
- 정동주 (생 72)
- 정예현 (상 63)**
- 정연웅 (상 63)
- 정인환 (법 54)
- 정재형 (약)
- 정철룡 (의 61)
- 정현진 (간 68)
- 정형민 (문 71)
- 정혜령 (간 72)
- 정황 (공 64)
- 제영혜 (생 71)**
- 조경애 (음 64)
- 조동철 (사 68)
- 조재국 (농 67)

- 주선희 (문 66)
 - 주정래 (상 65)
 - 조총자 (간 61)
 - 조태욱 (사 60)**
 - 주훈 (음 69)
 - 차중환 (사 54)**
 - 최복철 (공 70)
 - 최영구 (상 61)**
 - 최영순 (간 69)**
 - 최영지 (미 62)
 - 임동규 (미 57)**
 - 임귀희 (미 68)**
 - 한동수 (의 60)
 - 한성구 (상 53)
 - 한원민 (의 59)**
 - 한일 (공 62)
 - 한정현 (치 55)
 - 한택택 (공 60)
 - 현기웅 (문 64)
 - 홍성선 (약 72)**
 - 홍선일 (공 71)
 - 홍수웅 (의 59)
 - 황건홍 (공 55)**
 - 황현상 (의 55)**
- 뉴욕**
- AiJa Lee
- 곽선석 (공 61)
 - 강상진 (의 53)
 - 고순정 (간 69)
 - 고애자 (음 57)
 - 권문웅 (미 61)**
 - 권영국 (상 60)**
 - 권영대 (공 69)
 - 권정택 (의 58)
 - 금영천 (약 72)**
 - 김경일 (치 61)
 - 김민경 (약 61)
 - 김승호 (공 71)**
 - 김우영 (상 60)
 - 김영무 (공 75)
 - 김영웅 (치 55)**
 - 김영철 (의 55)
 - 김영희 (법 80)
 - 김용연 (문 63)**
 - 김정희 (간 69)
 - 김종원 (거 58)
 - 김진자 (간 60)
 - 김창수 (약 64)
 - 김창화 (미 65)
 - 김태일 (공 68)**
 - 김학자 (간 59)**
 - 김해암 (의 52)**
 - 김현중 (공 63)
 - 남상래 (간 65)**
 - 문석면 (의 52)**
 - 민인기 (의 67)
 - 리준우 (음 65)**
 - 박건이 (공 60)**
 - 박경희 (음 57)
 - 박성수 (공 56)
 - 박은규 (약 72)**
 - 방준재 (의 70)**
 - 변경웅 (공 65)
 - 변호현 (간 63)
 - 배상규 (약 60)
 - 서충선 (사 57)
 - 석창호 (의 66)
 - 신종철 (의 59)
 - 성기로 (약 57)
 - 손갑수 (약 59)**
 - 손경택 (농 57)
 - 송기인 (의 60)**
 - 송웅길 (대학원 69)
 - 신두식 (의 58)
 - 신응남 (농 70)**
 - 안태홍 (상 65)
 - 양명자 (사 63)**
 - 양성택 (상 66)
 - 오홍호 (의 66)
 - 오용환 (약 68)
 - 에드워드 강 (문 60)**
 - 우규환 (사 60)
 - 우상영 (상 55)
 - 유인숙 (간 63)**
 - 유재섭 (공 65)**
 - 유순재 (의 63)
 - 윤병남 (사 62)
 - 윤영섭 (의 57)
 - 윤철 (문 54)**
 - 윤현남 (공 64)**
 - 이강욱 (공 70)


- 이명중 (공 72)
 - 이문봉 (미 76)
 - 이중욱 (농 69)
 - 이중호 (의 63)
 - 이상근 (상 84)
 - 이상무 (의 56)**
 - 이영일 (의 60)
 - 이유성 (사 57)**
 - 이재진 (의 59)**
 - 이준행 (공 48)
 - 이태안 (의 61)
 - 이흥우 (공 50)**
 - 전병삼 (약 54)
 - 정동성 (상 58)**
 - 정인용 (의 71)
 - 정해민 (법 55)**
 - 정화용 (사 61)**
 - 조남천 (사 59)**
 - 조대영 (공 61)
 - 조득환 (의 61)
 - 조중수 (공 64)
 - 조태환 (상 56)
 - 진봉일 (공 50)
 - 차국만 (상 60)
 - 이영태 (문 67)
 - 최승웅 (의 61)
 - 최정웅 (사 63)
 - 최한웅 (농 58)
 - 최형우 (법 69)**
 - 한병용 (문 71)**
 - 한태진 (의 58)**
 - 함종근 (간 66)
 - 허경택 (의 71)
 - 허선형 (의 58)**
 - 허정열 (사 63)
 - 홍정표 (음 67)**
- 뉴잉글랜드**
- 곽노균 (상 51)
 - 김경일 (공 58)
 - 김문소 (수 61)
 - 김선혁 (약 59)
 - 박영철 (농 64)
 - 박종건 (의 56)
 - 송미자 (농 62)
 - 윤상래 (수 62)
 - 윤영자 (미 60)
 - 이규진 (약 60)**
 - 이금하 (문 69)
 - 이은주 (음 73)
 - 이의인 (공 68)
 - 임영호 (공 72)
 - 장용복 (공 58)
 - 정선주 (간 68)
 - 정정욱 (의 60)
 - (고)주창준 (의 50)
 - 최선의 (문 69)
 - 한서동 (의 61)
- 네바다**
- 김상순 (상 67)
 - 김영중 (치 66)
 - 김용재 (의 60)
 - 이학은 (약 57)**
 - 정상진 (상 59)
- 달라스**
- 최취기 (공 61)
- 미네소타**
- 김권식 (공 61)**
 - 문성인 (공 88)
 - 민홍기
 - 송웅길 (대학원 69)
 - 성유진
 - 용정식 (농 86)
 - 이창재 (문 56)**
 - 주한수 (수 62)
 - 황효숙 (사 65)
- 미시간**
- 고광국 (공 54)
 - 고선희 (문 63)**
 - 김국화 (공 56)
 - 김우신 (의 60)
 - 김정화 (음 56)**
 - 김재석 (의 61)
 - 남성희 (의 56)
 - 박용화 (의 58)**
 - 오동환 (의 65)
 - 오혁주 (사 88)**
 - 이성길 (의 65)

- 장병진 (공 61)
 - 조병권 (공 64)
 - 주영순 (간 64)
 - 하계현 (공 64)**
- 북가주**
- 강재호 (상 57)**
 - 김교연 (문 72)**
 - 김성철 (공 82)
 - 김정복 (사 55)
 - 김정희 (법 56)
 - 김현양 (공 64)**
 - 남광순 (음 64)
 - 박서규 (법 56)
 - 박성수 (공 59)
 - 박영태 (공 72)
 - 송영훈 (상 57)**
 - 신규영 (공 64)
 - 안호삼 (문 58)**
 - 위장호 (의 67)
 - 이관모 (공 55)
 - 이성원 (공 65)
 - 이성형 (공 57)
 - 이창환 (공 56)
 - 이흥기 (공 62)
 - 임승택 (문 66)
 - 임정란 (음 76)
 - 전병연 (공 54)
 - 정준임 (간 67)**
 - 조태욱 (사 60)
 - 최경선 (농 65)
 - 한상봉 (수 67)**
 - 홍병익 (공 68)
 - 황동하 (의 65)
- 샌디에고**
- 고경하 (공)
 - 김인철 (약 70)
 - 남장우 (사 56)
 - 이문상 (공 62)
 - 오계환 (공 64)**
 - 윤진수 (의 57)
 - 이문상 (공 62)
 - 이문기 (공 64)
 - 이영신 (간 77)
 - 임춘수 (의 57)**
- 시카고**
- 강영국 (수 67)
 - 구경희 (의 59)
 - 김길준 (의 59)
 - 김규호 (의 58)
 - 김병윤 (문 65)
 - 김성일 (공 68)
 - 김승주 (간 69)**
 - 김승호 (공 69)**
 - 김용환 (공 71)
 - 김윤하 (공 66)
 - 김정수 (문 69)
 - 김현주 (문 61)
 - 노영일 (의 64)
 - 민영기 (공 65)
 - 박동수 (정 58)
 - 박정일 (의 61)**
 - 박창욱 (공 56)
 - 백운기 (문 56)
 - 서상현 (의 65)
 - 소진문 (치 58)**
 - 송재현 (의 45)
 - 신석규 (문 54)
 - 안영학 (문 57)**
 - 유기정 (간 72)
 - 육길원 (사 59)
 - 윤영순 (사 61)
 - 윤덕상 (치 62)
 - 이경미 (미 69)
 - 이건정 (공 69)
 - 이동근 (공 75)
 - 이소희 (간 68)**
 - 이승자 (사 60)**
 - 이시영 (상 45)**

- 이용락 (공 48)
 - 이용수 (약 51)**
 - (고)이윤모 (농 57)
 - 이종일 (의 65)
 - 장윤일 (공 60)
 - 전연학 (공 69)
 - 전현일 (농 62)
 - 조대현 (공 67)
 - 최대한 (의 59)
 - 최혜숙 (의 53)
 - 최희수 (문 67)
 - 한재은 (의 59)
 - 홍건 (의 64)
 - 홍청일 (약 57)
 - 황소나
 - 황치룡 (문 65)
- 아리조나**
- 진명규 (공 70)**
- 오레곤**
- 김영자 (간 56)
 - 박희진 (농 78)
 - 최용성 (의 55)
 - 이국남 (공 57)
 - 한영준 (사 60)
- 오하이오**
- 명인재 (자 75)
 - 박훈 (공 74)
 - (고)이영웅 (의 57)
- 워싱턴 DC**
- 강길중 (약 69)
 - 고의걸 (의 55)**
 - 곽명수 (문 65)
 - 권철수 (의 68)
 - 김기봉 (공 63)
 - 김기환 (공 67)**
 - 김내도 (공 62)
 - 김부근 (의 58)
 - 김영란 (사 58)
 - 김윤호 (공 64)
 - 김응환 (치 88)**
 - 김희주 (의 62)**
 - 나연수 (사 57)
 - 남춘일 (사 69)
 - 박인영 (의 69)
 - 박일영 (문 59)
 - 박찬모 (공 54)**
 - 박홍우 (문 61)
 - 배성호 (의 65)
 - 백순 (법 58)
 - 백용현 (공 64)
 - 서윤석 (의 62)**
 - 석규범 (문 61)
 - 신경은 (문 65)
 - 오인환 (문 63)**
 - 양용관 (수 62)
 - 유재형 (상 54)
 - 유달 (의 67)**
 - 유영신 (인 74)
 - 유영준 (의 74)
 - 이건형 (수 54)
 - 이내원 (사 58)**
 - 이서구 (문 61)
 - 이선구 (문 65)**
 - 이성배 (수 57)
 - 이연주 (치 88)**
 - 이영덕 (사 61)
 - 이윤주 (상 63)
 - 이재승 (의 55)**
 - 이종국 (의 52)
 - 이준영 (치 74)
 - 이진상 (공 57)
 - 이철수 (공 61)
 - 임광록 (간 72)
 - 전희순 (간 76)
 - 정영자 (사 56)
 - 정원자 (농 62)
 - 정평희 (공 71)

- 조병선 (의 65)
 - 천권희 (간)
 - 최경수 (문 54)**
 - 최대영 (의 73)**
 - 최재귀 (미 63)
 - 한광수 (의 57)**
 - 홍영석 (공 58)
- 워싱턴주**
- 권영희 (약 66)
 - 김교선 (법 54)
 - 김인배 (수 59)**
 - 김재훈 (공 72)**
 - 류성열 (공 72)**
 - 변동해 (법 58)
 - 안승적 (농 59)
 - 윤석진 (문 64)
 - 윤태근 (상 69)
 - 이길승 (상 57)
 - 이명자 (간 74)
 - 이연주 (치 88)**
 - 이회백 (의 55)
 - 정영자 (사 56)
 - 최준환 (농 58)
- 유타**
- 김인기 (문 57)
- 조지아**
- 김기춘 (공 61)
 - 김영서 (상 54)
 - 김중구 (수 73)
 - 김현희 (간 59)
 - 백낙영 (상 61)
 - 서광모 (공 65)
 - Steve Sung
 - 오경호 (수 60)
 - 윤영돈 (법 59)
 - 은철수
 - 이종석 (의 54)
 - 임수양 (공 62)**
 - 임한웅 (공 60)**
 - 정선휘 (공 65)**
 - 최덕순 (간 58)
 - 최종진 (의 63)
 - 한성수 (의 54)
- 캐롤라이나**
- 이종영 (음 58)**
 - 정신호 (자 78)
- 커네티컷**
- 라찬국 (의 57)
 - 최창승 (의 58)**
- 테네시**
- 김경택 (공 75)**
 - 서갑식 (공 70)
 - 임효순 (간 71)
- 텍사스**
- 김장환 (공 81)
 - 유황 (농 56)
 - 윤영주 (문 60)
 - 조진태 (문 57)
 - 전중희 (공 56)**
 - 진기주 (상 60)**
 - 황명규 (공 61)
- 플로리다**
- 김성준 (의 55)
 - 김중권 (의 63)
 - 박창익 (농 64)
 - 안창현 (의 55)
 - 오석일 (의 64)
 - 원인순 (문 71)
 - 이민우 (의 62)**
 - 이만택 (의 57)**
 - 정의철 (의 55)
 - 하재청 (문 67)

-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 55)
 - 강준철 (사 59)
 - 김국간 (치 64)
 - 김규화 (상 63)
 - 김현영 (수 58)**
 - 손재욱 (가 77)**
 - 송성균 (공 50)
 - 서의원 (공 66)
 - 서종민 (공 64)**
 - 성정호 (약 59)**
 - 신선자 (사 60)
 - 심영석 (공 76)
 - 안세현 (의 62)
 - 엄중렬 (미 61)
 - 유영걸 (의 70)
 - 윤경숙 (문 59)**
 - 윤정나 (음 57)
 - 이규호 (공 56)
 - 이성숙 (생 74)
 - 이수경 (자 81)
 - 이지훈 (미 57)**
 - 이홍일 (상 70)
 - 조화연 (음 64)**
 - 전무식 (수 61)**
 - 전방남 (상 73)**
 - 정덕준 (상 63)
 - 정학량 (약 56)
 - 정홍택 (상 61)
 - 조정현 (수 58)
 - 주기목 (수 68)
 - 지흥민 (수 61)
 - 최현태 (문 62)
 - 한동휘 (문 57)
 - 한수웅 (의 55)
 - 한용오 (보 70)
- 하와이**
- 김달욱 (사 55)
 - 김용수 (농 75)
 - 김을균 (공 63)
 - 안은식 (문 55)
 - 이재형 (수 61)**
 - 최경윤 (사 51)**
 - 하인환 (공 56)**
- 하트랜드**
- 김경숙 (가 70)**
 - 김재경 (공 64)**
 - 김태찬 (음 80)
 - 김시근 (공 72)**
 - 배규영 (사 68)
 - 오명순 (생 69)
 - 이광자 (간 63)
 - 이상강 (의 70)**
 - 이주현 (미 92)
 - 이치현 (약 77)
 - 임소연 (음 91)
 - 정민재 (농 71)
 - 조원지 (문 63)**
 - 호민선 (상 59)
- 휴스턴**
- 김영일 (의 55)
 - 박석규 (간 59)
 - 박유미 (약 62)**
 - 박태우 (공 64)**
 - 이윤성 (수 81)**
 - 이은애 (음 81)
 - 이학호 (수 59)
 - 진기주 (상 60)**
 - 최관일 (공 54)**
 - 최성호 (문 58)
 - 최용천 (의 53)
- 룩키마운틴스**
- 송요준 (의 64)**
 - 전남인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진 (의 64)	100
김동진 (의 65)	300
김동진 (의 66)	200
김동진 (의 67)	300
김동진 (의 68)	100
김동진 (의 69)	200
김동진 (의 70)	200
김동진 (의 71)	200
김동진 (의 72)	200
김동진 (의 73)	200
김동진 (의 74)	200
김동진 (의 75)	200
김동진 (의 76)	200
김동진 (의 77)	200
김동진 (의 78)	200
김동진 (의 79)	200
김동진 (의 80)	200
김동진 (의 81)	200
김동진 (의 82)	200
김동진 (의 83)	200
김동진 (의 84)	200
김동진 (의 85)	200
김동진 (의 86)	200
김동진 (의 87)	200
김동진 (의 88)	200
김동진 (의 89)	200
김동진 (의 90)	200
김동진 (의 91)	200
김동진 (의 92)	200
김동진 (의 93)	200
김동진 (의 94)	200
김동진 (의 95)	200
김동진 (의 96)	200
김동진 (의 97)	200
김동진 (의 98)	200
김동진 (의 99)	200
김동진 (의 100)	200
뉴욕	
박선진 (공 61)	200
박선진 (공 62)	500
박선진 (공 63)	100
박선진 (공 64)	200
박선진 (공 65)	200
박선진 (공 66)	200
박선진 (공 67)	1,000
박선진 (공 68)	200
박선진 (공 69)	1,000
박선진 (공 70)	200
박선진 (공 71)	200
박선진 (공 72)	300
박선진 (공 73)	200
북가주	
이상원 (공 65)	2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200
오석일 (의 64)	200
조지아	
최종진 (의 63)	500
네바다	
김상순 (상 67)	200

미시간	
이상길 (의 65)	200
커네티컷	
최창송 (의 58)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워싱턴DC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50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1,000
백순 (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시카고	
소진문 (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1,0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200
필라델피아	
최창송 (의 52)	500
손재욱 (가 77)	50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41,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1,0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강호석 (상 81)	240
이종모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240
하기환 (공 66)	240
김경우 (공 69)	240
김원탁 (공 65)	240
김일영 (의 65)	240
신동국 (수 76)	240
최무식 (약 66)	240
이경희 (인 83)	24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뉴욕	
김승호 (공 71)	240
신응남 (농 70)	240
석창호 (의 66)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24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4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 53)	3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200
홍성선 (약 72)	1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시카고	
김현주 (문 61)	3,000
이용락 (공 48)	3,0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7,000
박수경 (생 84)	2,7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경희 (인 83)	300
하기환 (공 66)	1,000
홍훈정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한광수 (의 57)	3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튀르키예 기부금	
남가주	
서진 (간)	3,0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1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1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Charity Fund	
필라델피아	
신익석 (공 53)	5,000
나눔기금	
남가주	
주선희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지부분담금	
북가주	
최경선 (농)	1,300
뉴잉글랜드	
최진민 (공 71)	1,000
미네소타	
윤정식/성옥진 (농86/처87)	550
워싱턴 DC	
정세근 (자 82)	2,000
워싱턴	
임현민 (공 84)	800
록키마운틴스	
최문기 (공 63)	200
조지아	
배혜영 (음 79)	800
샌디에고	
송오석	550
캐롤라이나	
정성호 (자 78)	200
휴스턴	
김정환 (공 80)	550
인명록비	
뉴욕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AAA USA 주소: SNA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input type="checkbox"/> 전면 10"x12"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x12"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x4"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3.5" x 2")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5" x 4.5")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7대 이상강 회장과 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LA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손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 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익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박중효 소아과
박중효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패밀리오피스(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한국법인 대표)
T: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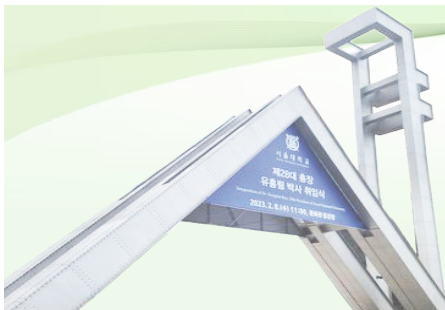
A.P.W. 자동차 부품

APOLLO PRONTO WAREHOUSE, INC.

서동영 (사대 60)

Tel.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멋진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 백옥자 음대71입 이만택 의대52입 조무상 법학과 70입 한귀희 회화과 68입

서울대에

천원의 식사는 학생들이 한끼 천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신의



천원의 식사에 참여하신 모든 기부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너 월에 기록합니다

이름을



이 특별한 벽에 기부자님의 이름과 함께 나눔의 뜻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새벽



천원의 식사
자세히 보기

지금 참여가능 합니다 ☎ 213-435-1974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드립니다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중(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효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중(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최경석(사)/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향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만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평일(농)
위원: 황경순(공), 이치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향균(사), 배규영(사)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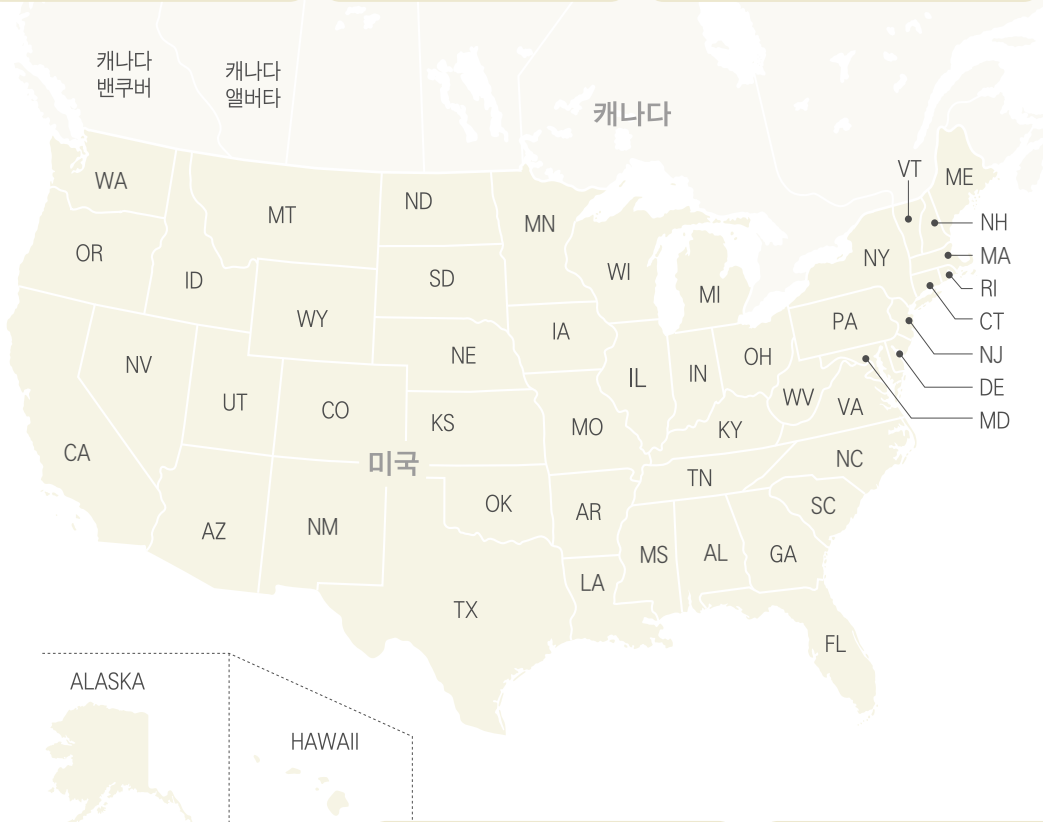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 (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황 (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up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승 (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 회장 정성일 (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뉴욕 NY/NJ (July~Jun) 연영재(공대 74) T: (201)233-7108 jayyeonsnu@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북텍사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 (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 (공대 91) kunhok@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오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이승훈 (상대 74)

Jayone Foods, Inc.

자연나라

TEL 562-633-7400 | ADDRESS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Lin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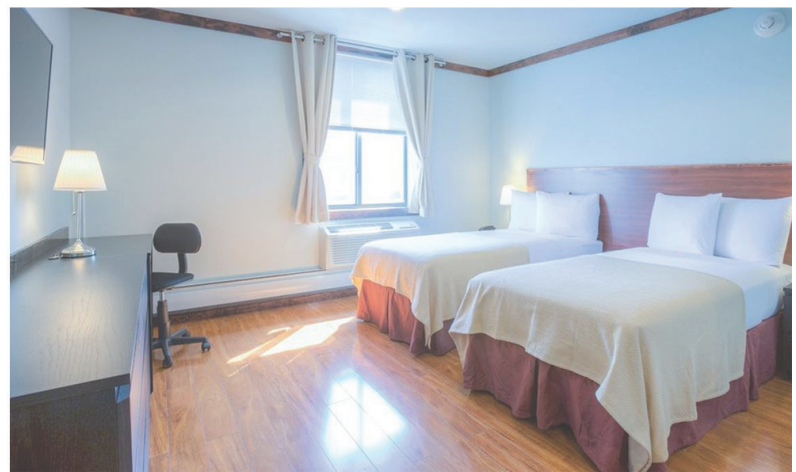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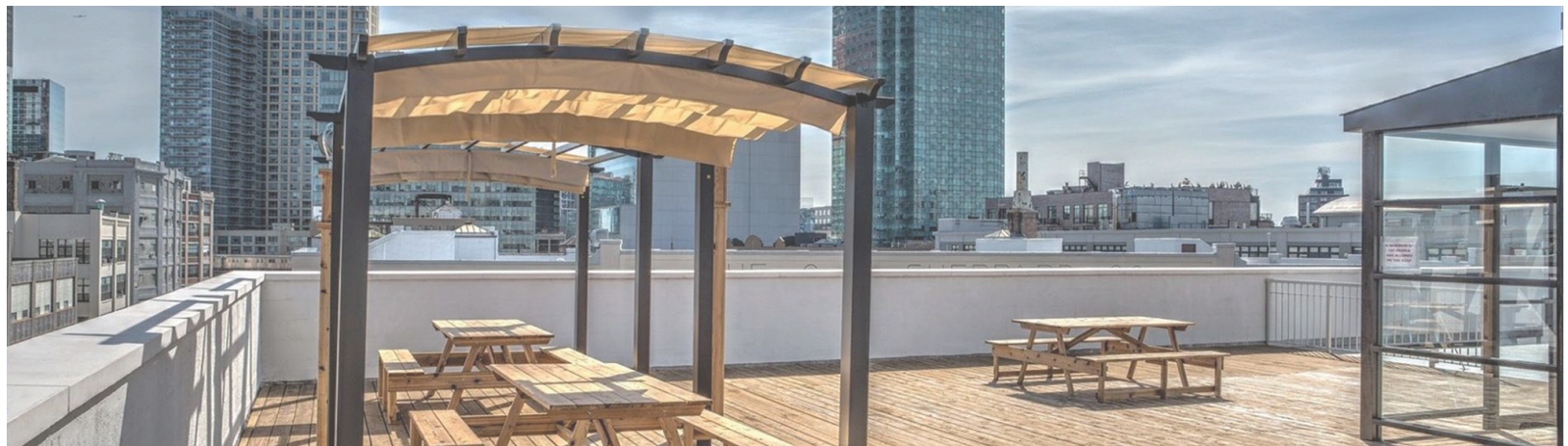
RECEIVER | ANTENNA&POSITIONER | LNB,LNBF&FREEDHORN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김원탁 (공대 65)



김승호 (공대 71)



At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718-406-9788

reservations@lichotelny.com
44-04 21st St., Queens, NY 11101